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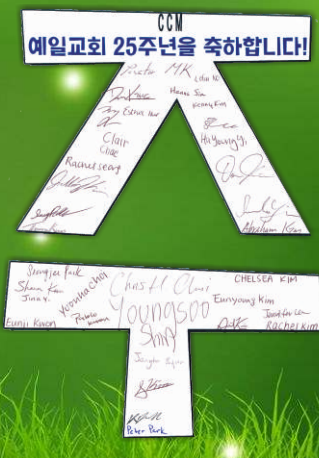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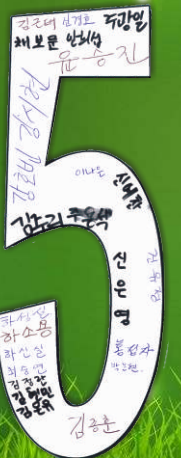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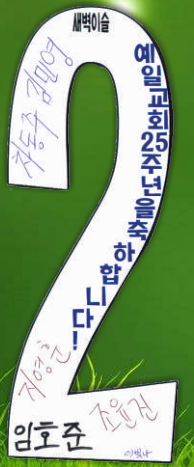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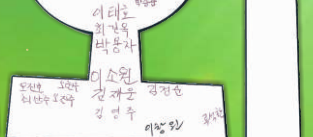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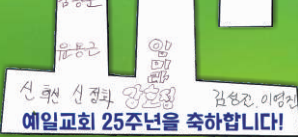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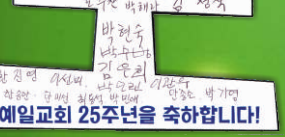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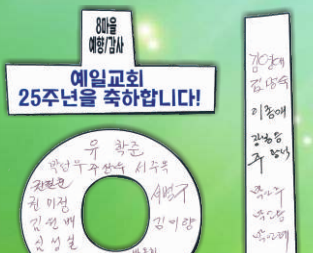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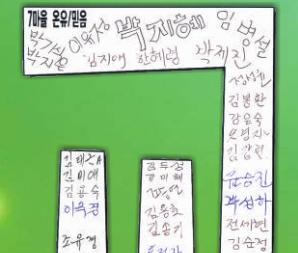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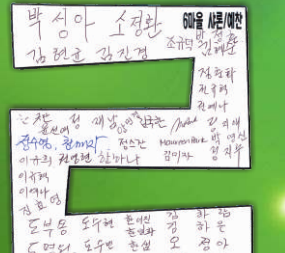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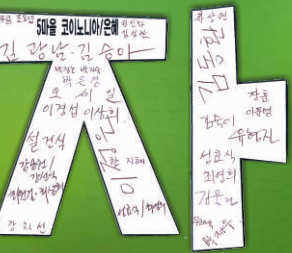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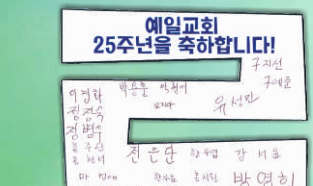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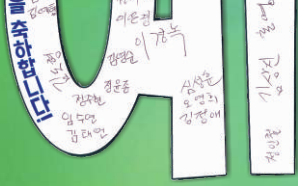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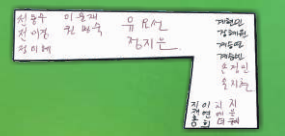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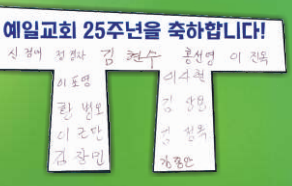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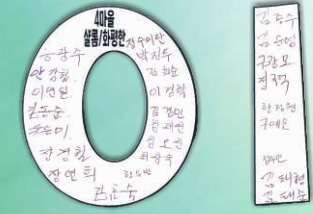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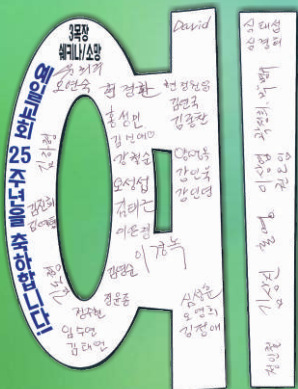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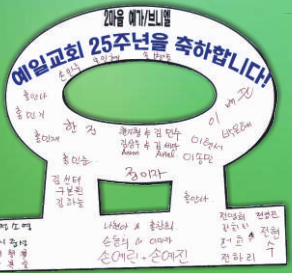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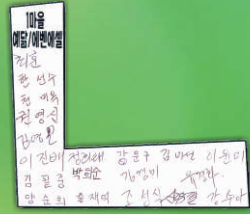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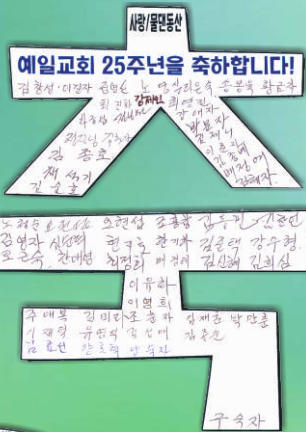
예수님



뉴욕 예일 장로 교회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이야기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두언 ■ 발간사 ■ 교육/역사 ■ 창립기념 감사 ■ 선교 ■ 선교 화보 ■ 커뮤니티 ■ 시 ■ 찬양/간증 ■ 제자훈련 101 ■ 제자훈련 201 ■ 교육/역사 	<p>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김종훈 담임목사 _ 5</p> <p>예수마을은 교회의 얼굴이며 전도지.....김준택 장로 _ 6</p> <p>25주년을 맞는 예일교회에 감사하며.....김근태 장로 _ 7</p> <p>성경 밖에 있는 성경이야기.....채문권 목사 _ 8</p> <p>주님의 포도원 예일 포도원.....송광수 장로_11</p> <p>선교와 우리들의 사명.....윤희주 장로_13</p> <p>니카라과 전도집회.....김영애 권사_16</p> <p>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한 단상...조유경 사모_17</p> <p>골고다 언덕을 걸으며.....최정희 권사_20</p> <p>이스라엘 성지순례.....김마라 권사_22</p> <p>Work Camp 2017.....Yvette Sol_25</p> <p>Work Camp 2017.....Samuel Kim_27</p> <p>니카라과 복음화 대회.....편집부_29</p> <p>뉴욕예일장로교회에 다녀와서.....김진자 목사_36</p> <p>짧은만남, 긴 여운.....황용훈 목사_38</p> <p>힐링과 감사.....정영화 사모_39</p> <p>새벽을 여는소리.....정성원 장로_40</p> <p>찬양대의 역할.....박성하 목사_41</p> <p>Could You tell me... carnegie Hall?.....한미선 집사_43</p> <p>Carnegie Hall.....Sean Han_45</p> <p>Carnegie Hall.....Fath Han_46</p> <p>101제자양육을 마치며.....김장민 집사_47</p> <p>101 제자양육을 마치며.....김태연 집사_49</p> <p>201 제자훈련.....김광남 집사_50</p> <p>201 제자훈련.....김태근A 집사_51</p> <p>생활속제.....김태근B 집사_52</p> <p>201 제자훈련을 마치며.....마성애 집사_53</p> <p>201 제자훈련을 마치며.....서은순 집사_54</p> <p>제자훈련을 마치며.....유은미 집사_55</p> <p>기뻐하는 훈련.....한 진 집사_56</p> <p>201 제자훈련을 마치며.....이희영 집사_58</p> <p>25주년 기념 성경필사.....도부용 집사_59</p>
--	--





■ 커뮤니티

■ 화보

■ 간증

■ 정보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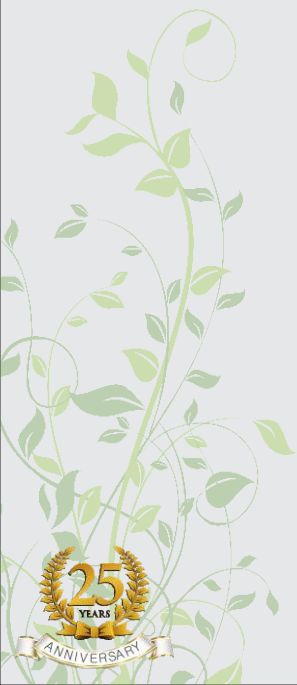
■ 전문 칼럼

■ 목장 이야기

■ 사역팀 이야기

■ 행사 이야기

마더와이즈 ‘자유’ 를 통해서 강은숙 집사_61
 마더와이즈 ‘자유’ 편을 공부하고 나서 김수연 집사_62
 마더와이즈 ‘자유’ 노애라 집사_63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편집부_64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방영희 권사_81
 뿌리를 찾아서 박재우 장로_83
 네가 순종할 수있느냐? 박지혜 권사_85
 소소한행복 이윤미 권사_87
 두번째 마을찬양제 김수연 집사_90
 주님의 사랑방식 심성실 성도_91
 북방왕과 남방 왕의 쟁투 정성원 장로_92
 팔보약차 성태섭 장로_95
 시력교정술의 종류 강시현 집사_98
 자녀들의 진학상담 손정민 집사_100
 약의 올바른 사용과 습관 오현섭 장로_102
 투자의 기본과 주의점 김태연 집사_104
 만성 신장병 박영우 집사_107
 새로운 세계 유성민 집사_110
 예돗, 브니엘, 예가, 쉐키나, 소망, 살롬, 화평한 112
 코이노니아, 은혜, 샤론, 예찬, 온유, 믿음, 예향, 감사
 CCM 이야기 채문권 목사_127
 Youth Group 128
 유년부 이야기 129
 사랑선교회-호도단풍구경 및 기도회 130
 새벽이슬회 이야기 131
 실버클럽 이야기 132
 드라마팀 133
 할렘선교 이야기 134
 교역자 Retreat 135
 마을지기, 목자, 총무의 밤 136
 널싱홈 방문 137
 선교회 성탄절 모임 138
 예일 찬양단 신앙수련회 139
 6 선교회와 추수감사절 만찬 140
 추수감사절 오행사 14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금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5주년을 청년의 해를 맞은 교회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즉,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 소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제일 신앙으로 25년을 한결같이 달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핵심 가치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이므로 이 두 요소를 교회의 인프라(infra)로 삼았습니다. 이 하부구조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 가르치심(양육과 훈련), 복음전파(전도와 선교), 치료사역(섬김과 나눔)을 우리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 삼았습니다(마 4:23; 9:35). 무엇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 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내 주실 성도로 교회를 채워주셨고, 구입해야 할 성전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선교적 동력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 교단과, 지역 사회와, 선교지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시(꿈)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잠 29:18). 자기 만족과 인간의 욕망의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꿈을 오늘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국 민족은 세계 180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진 복음의 씨앗으로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난을 통해 배운 순결한 신앙과, 주께서 이룩하게 하신 경제적 성장과, 타 민족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영적 에너지와, 글로벌 시대에 준비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잠재력이 마지막 시대 선교의 주역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설립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담아 “예수마을”을 펴 냅니다. 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마을은 교회의 얼굴이며 전도지

예수마을 통권 제 18호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 해마다 예수마을을 18년 째 출간하게 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마을은 예수님 제일로 섬기는 예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보고서이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수마을은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거울입니다.
 예수마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마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마을은 감격과 감사가 담긴 마음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마을은 1년 동안 주님께 신앙적으로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마을을 출간하면서 예수님의 빛과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예수마을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마을은 예일교회의 얼굴이며 전도지입니다. 이 예수마을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마을 출간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신 김종훈 담임목사님과 정성 어린 원고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마을 출판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출판사역부의 부장이신 박성우 집사님 외 자료, 사진, 편집으로 수고한 강호정, 임미라, 강서윤, 홍성민, 홍 영 집사님, 그리고 겉표지를 디자인해 주신 진유정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마을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5주년을 맞는 예일교회에 감사하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편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사실 저는 부담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와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의 영적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한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면 내가 좋아하는 골프장으로 또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영혼은 메말라 갔고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있던 불안한 마음이 다시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내 성격이 많이 예민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아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에 격한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품속에 푹 빠졌을 때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일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새벽예배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있던 저의 마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한 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고 눈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많은것이 변했습니다. 예배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찬양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 온 가족이 함께 회복되어졌습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 일터가 전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꺾인 갈대같은 저를 다시 세우시고 귀하고 귀한 예일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주년을 맞는 예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일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예일 오케스트라! 신앙은 시선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휘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일교회의 독특한 매력 중에 하나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진실된 믿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함께 하시는 예일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이야기

- Episode 1 -

우리가 가진 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은 많은 부분이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전 2000-1500년 경 고대 근동에 살았고, 모세는 주전 15세기 혹은 13세기에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첫 세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은 주전 11-10세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학적인 사유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모세를 직접 부르신 분이시고, 사무엘을 시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은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 중에서 성경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성경의 내용과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 궁금해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제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메르넵타 석비(Merpentah Stele)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메르넵타 석비는 1896년 Flinders Petrie 가 테베의 메르넵타 기념신전에서 발견하였으며 현재는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 전시 중에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메르넵타 석비의 모습입니다. 메르넵타는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로, 주전 1213년에서 1203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입니다. 그의 재위 5년째 되던 해에 리비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메르넵타 석비를 제작, 기록하였습니다. 높이 3.18m, 폭 1.63m의 검은 화강암 석비로 28줄에 걸쳐서 이집트 상형문자로 승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르넵타 석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석비가 성경 외의 역사적 사료 중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총 28줄로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그 중 마지막 세 줄인 26-28 줄은 가나안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오래도록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무역로를 장악해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통치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27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그림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26-27줄의 일부의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arried off is Ashkelon; seized upon is Gezer;
Yanoam is made as that which does not exist;
Israel is laid waste, his seed is not.
아스글론은 사로잡혔고, 게셀은 장악되었다.
야노암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메르넵타는 가나안의 도시 국가인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을 정복하였으며 이스라엘도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종종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일 것이라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혹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고대 왕들이 자신의 전쟁 성과를 자랑하고자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문은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의 통치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 및 이스라엘을 언급했다는 것은 언급된 네 개의 집단 혹은 국가가 가나안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 비문의 내용은 주전 13세기 말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가나안에 있었으며, 이집트가 가나안을 정복했음을 말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집단 중에 하나였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 번역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 세 도시와 이스라엘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는 그 대상이 도시국가 인지, 부족인지, 개인인지 한 정하는 한정사(determinative)가 있었는데요, 아스글론, 게셀, 야노암에 대해서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한정사를 사용하였고,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의미하는 다른 종류의 한정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민족”이라는 한정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한 도시에 기반을 둔 도시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전 13세기 말 메르넵타 석비를 기록할 당시 이집트 정부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알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은 왕이 한 도시에 거하며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던 도시국가와는 달리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좀 더 느슨한 정치제도를 가진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13세기 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에 흩어져 있으면서, 동일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연합된 지파동맹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왕이 있고 왕이 거하는 한 도시가 있어서 그 곳이 중심지가 되는 도시국가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11세기 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제도는 세습되는 정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모든

지파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입다가 자신들의 지파를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사사기 8장, 12장 참조). 이스라엘은 주위의 도시국가나 왕국들 보다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파동맹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언급이지만, 이 한 줄이 성경 밖에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료입니다.

주전 13세기 가나안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집트 정부는 도시국가가 아니라 “민족”을 의미하는 한정사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이 왕국이나 도시국가가 아닌 정치적으로 좀 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집단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잘 맞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렸으며,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흩어져 정착한 12지파가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한 지파동맹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그 때 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주변 국가들처럼 군사적인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메르넵타 석비는 고대 이집트 정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 또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도시국가 형태의 정치제도가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료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적인 사료가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뒷받침 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 메르넵타 석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나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었습니다. 그럼 다음 예수마음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 예일 포도원

창립 25주년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79: 13)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 16)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 제일 예일교회 주께서 주의 보혈로 친히 세우셨기에 25년을 하루같이 지냈 습니다.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을 높여드리며 주께 쓰임 받 았음을 감사 드립니다.

내적 성장기를 은혜로 지낼 수 있었으며 대외적으로 복음 사명을 감 당하는 청장년 시기를 맞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 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구역예배로 모였으나 2005년부터는 소 그룹의 목장으로 모 였습니다. 이제 모든 목장의 연합체이며 주님의 포도원인 예일 포도원 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 즉 포도 동산입니다. 우리는 포도 원에 부름 받은 주님의 일꾼들 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 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21:1) 주인 이 이른 아침부터 제 3시, 제 6시, 제 9시, 제 11시에도 포도원에 들어 가라 하셨습니다. 하루의 마감시간 한 시간 전까지도 부르심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배려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기쁨의 찬양이 있는 예일 포도원

지난 번에도 기록하였듯이 여호와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 에 석 달을 머문 것 같이 한 가정에서 석 달간 예배 드리 게 하시고 College Point에 있는 Episcopal Church를

빌려서 예배 드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엔학고래의 샘’이었습니다.

성숙기에는 Bayside Jewish Temple로 옮겨 헌신과 희생으로 적진의 베들레헬 샘의 물까지 퍼 올릴 수 있었던 신실한 섬김의 생명수 은혜의 강 ‘생명의 샘’으로 소성하고, 부흥하고, 번성케 하였습니다. 사 반세기를 맞는 우리 예일에 포도원 지기의 Rule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 37-38) 하셨으니 주의 포도 동산에서 샅꾼이 아닌 신실한 청지기로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 우리의 자녀 손 대대로 주의 하신 일을 전하고 알려야겠습니다.



1. 25주년을 맞으며 세 번째 성경 필사 (10주년, 15주년, 25주년)를 하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20주년에는 성경 일 천 독 쌓기로 온 성도들이 신 구약 66권을 한 번 이상 읽어 말씀을 읽고 깨달음에 이것이 우리교회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2. 전 교우 축하 메시지 ‘축 뉴욕 예일 장로교회 25 주년’ 목장들이 따로 별도 참여하고 새벽이슬, CCM, Youth Group이 같이 했습니다.
3. 감사 찬양제 (선교회 별도 전 교우가 함께 참여하는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포도원의 지경을 넓혀 길 건너 Jewish Temple 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구나”
(아1: 14)

주님의 포도원에 25년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쓰임 받았는데 아름다운 향기와 기쁨의 찬양이 있는 예일 포도원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포도 동산에서 샅꾼이 아닌 신실한 청지기로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 우리의 자녀 손 대대로 주의 하신 일을 전하고 알려야겠습니다.

선교와 우리들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선교의 사명이 예일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힘이 들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은 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니카라과 선교와 9차의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가 협력하여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 5월 23일 예일교회가 창립 된 지 올해가 25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면 1996년도에 허원구 목사님 사역지인 칠레선교가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한 사역지입니다. 그 다음 케냐(임금희 선교사), 중국연변(이윤식 목사), 니카라과(이동홍 선교사), 볼리비아(윤도근 선교사), 인도(쌍 목사), 필리핀(변창욱 목사, 박인호 선교사, 김정철 선교사), 도미니카(한요한 목사), 뉴멕시코(이덕재 목사), 이스라엘 성지순례, 과테말라(김상돈 목사) 알바니아(이항모 선교사) 등 매년 한 두 차례씩 꾸준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장년들과 함께 단기선교와 Work Camp를 다니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처음으로 방송선교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선교지를 확장하여 현재는 43곳



의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2008년부터 시작된 니카라과 선교 전도대회는 올해로 9차례의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대회는 많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차례의 대회를 통해서 총 인원 166,000명이 동원되었으며, 결신자 5,245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 갑시다. ”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뿌려놓은 많은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에 천국에서 이 귀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우리 교회는 가

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 갑시다.



니카라과 전도집회

-부채춤 사역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여자 컬링 대표 5명의 팀 별명이 Team Kim이었는데, 우리 예일교회의 니카라과 전도대회 부채춤 사역팀도 김씨 5인방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부채춤 사역팀은 그 어느 해보다도 평균 연령이 높았던 팀이었다.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앞두고 3개월여 전부터 모여 연습을 시작했는데 경험이 있는 기존의 팀원 세 명과 처음 부채를 잡아보는 두 명의 새 팀원들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선교를 향한 우리의 의욕은 충만했으나,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8 시나 되어 만나 두 세 시간을 연습하는 우리의 몸은 마음과 전혀 같지 않았다. 그 동안 모셔만 두었던 근육들의 항의와 아우성 속에서 여기저기 찌시고 아프다는 말이 인사가 되어갈 즈음, 고된 연습에도 별반 진전이 없을 듯했던 염려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들의 부채춤 사위는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 갔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던 격언처럼, 지금 돌아보면 고통 가운데에도 끝까지 인내하여 아름다운 부채춤으로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우리 김씨 5인방 모두에게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도착한 니카라과에서 만난 연합 선교팀 중에 캐나다 영광교회에서 온 부채춤 팀을 만났다. 그 분들은 우리의 평균 연령보다 10년을 더한 60대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원들이 모여 거의 매일 연습했다고 하며 우리 팀원들에게 토전을 주었다. 50대도 부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분들의 열정은 그 얼굴들을 빛나게 하여 나이조차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선 81세나 되신 왕 권사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시종일관 꼳꼳하고 청정한 모습으로 선교대원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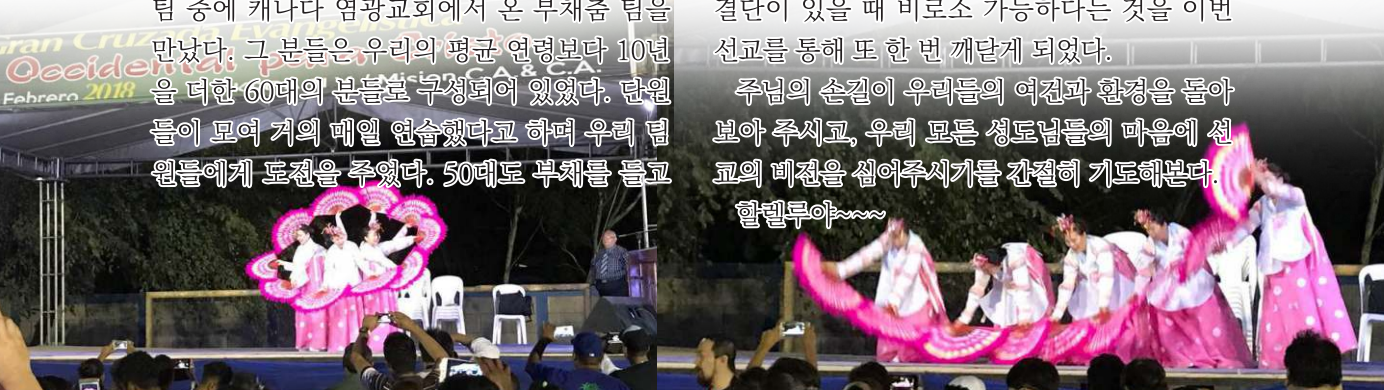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3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여겨오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그 중 하나가 나이였다고 생각하며, 한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기운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떠나자~”라고 여겨왔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나이에 관한 나의 걸림돌은 잊기로 했다.

혹자는 올해로 아홉 돌을 맞은 마사야 전도집회를 왜? 또!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리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사역과 저널 그리고 아침 QT 시간을 통해 더욱 마음에 다가오는 답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인 우리가 왜 그만두려 하는지...” 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 앞이 환해졌다.

선교는 시간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나이가 젊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여건과 환경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한 단상

일반적으로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와 둘째는 그 여행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면 가이드가 설명을 잘 해주어야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지순례는 정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잘 조화된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성지순례는 5년 전에 갔었던 성지순례와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반 정도는 전에 가보지 못한 곳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런 여행일정이었습니다.

성지순례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장소들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읽는 것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직접 체험하며 듣고 상기

하여 보게 됨으로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고 역사적인 고찰을 하게 되니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같은 장소라도 전에 가봤던 곳이지만 그동안 더 개발하고 역사적으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니 새롭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날씨가 얼마나 청명하고 좋았는지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비도 안 오고 안개도 없어서 멀리까지 잘 보이니 덤으로 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원한 오후의 바람과 해변을 끼고 걸어가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



옴바



가이사라 빌립보

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나타난 이곳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옘바 해변에 위치한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초청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온 몸으로 느껴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우리 교회 창립 모토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여러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경배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직접 가서 봄으로써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평범하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많은 시대에 던진 그 질문은 마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질문처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수 없이 목사님으로부터 새 가족 심방 때마다 들었던 이 말씀이 그곳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각오를 촉구하는 의미심장한 도전의 질문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비아도로로사 고난의 길을 우리 모두가 찬송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조잡스럽고 복잡한 시장 바닥을 걷는데도 난잡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며 집중하며 찬송을 하니 가슴 저 구석에서 어느새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랑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요!

나사렛 빌리지를 둘러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상상해 봅니다. 썩은 시체와 고약한 냄새와 시커먼 물이 흘러나왔어야 하는 무덤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맘으로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멋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또한 허공을 치는 헛된 소리가 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느껴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검증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에 절대적인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나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온 여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며 웃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성지순례 여행이었습니다. 끝까지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이번 성지순례 팀을 보면서 가슴이 짝 채워지는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걸으며

우선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성지는 가는 곳마다 놀라울 만큼 은혜이고 감동의 장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과 말씀으로만 듣다가 현지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직접 보니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생각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핍박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한 몸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열

에 목 디스크 수술도 같이 하였었죠. 저는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하러 가기 전, 기도하며 성경과 찬송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찬송을 찾았습니다. 잘 모르고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 저는 이 찬송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저를 고쳐주시면 힘껏 봉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실버클럽과 주일 부역 봉사를 하



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길은 고통과 은혜와 감동이고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2012년 6월과 2013년 9월에 양쪽 다리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였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갈 때만 해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해서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못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도 나 혼자 걷기는 무리였습니다. 이번에 같이 온 우리 성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못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순례 팀께서 사랑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재홍 장로님, 정수영 장로님은 저를 붙들고 다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뒤쳐지면, 김근태 장로님과 전용수 집사님은 뒤에서 밸런스 맞춰 주시느라 천천히 따라와 주신 것 또한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은 우리 믿음의 성지순례 팀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세요. 이걸 나의 경험입니다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 많이 하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줄 아실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 몸에 면역이 생기죠. 차일피일 미루다, 나이 먹고 힘 빠지면 후회합니다. 나 같은 경우, 늦게 철이 들어서 늦게 봉사 한 것 지금은 후회합니다.

성지순례 마지막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걸었죠. 우리 사모님이 “오늘 여러분은 15000보를 걸었습니다” 하실 때, 정말 내 자신이 대견하고 끝까지 승리한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사랑합니다.

끝으로 내가 아플 때 온 교인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치료 받으러 다닐 때 병원으로 라이드 해주신 분들, 목사님과 사모님, 이재덕 권사님, 김필중 권사님, 이제야 고맙다고 인사 드립니다. 우리 교인 모두에게 감사 드리며.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성령의 땅 이스라엘로 예일교회 성지순례 팀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몹시도 바람 불며 비가 오는 추운 1월 저희 들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경직된 모습으로 뉴와공항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봄날처럼 따스하고 화창한 날씨로 영혼의 고향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행을 반겨주는 믿음이 가는 가이드 목사님과 첫발을 디딘 곳은 구약시대의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던 쉘펠라 골짜기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소렛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던 엘렛골짜기, 석굴암 동굴 안에 식용과 제물로 사육하는 비둘기 사육장이 있는 마레서 골짜기, 앗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온 라기스 골짜기 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 이긴 삼손과 다윗의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쉘펠라 골짜기에서 성지순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항구도시 욥바에 와서 베드로가 묵었던 피장시몬의 집,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념교회, 요나의 물고기 동상 앞에서 바라보는 지중해를 보았습니다. 은혜로운 성지순례의 첫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도착한 헤롯이 세운 인공의 항구도시인 가이사라는 사울이 전도여행 중 거쳐가고 감금되었던 곳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이곳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넘어 로마까지 뻗어간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두산건설이 건설한 가이사라 화력 발전소를 뒤로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비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승리한 갈멜산을 지나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빌리지 (비록 예수님 시대의 생활을 체험하는 작은 민속촌이지만),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 양털을 짜서 베옷을 만드는 여인 등 어릴 적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곳에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 예수님의 공생애 초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 가나혼인잔치 교회를 거쳐 석양의 갈릴리 호수에서 드리는 선상예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적은 믿음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예수님!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 후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스라엘 북경 지역에 위치한 텔단이 있는 헬몬산을 향하여 가는 길은 오른쪽은 골란 고원, 왼쪽은 성경에 써 부리는 비유의 네 가지 땅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많은 돌이 야산에 널려있는 돌밭, 돌밭 사이사이 가지떨기,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파란 짝이 난 밀밭, 우리의 버스가 달리는 길가 등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겠구나 생각하며 우리는 이 길을 버스로 달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이스라엘 최북단인 바니아스 폭포와 더불어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중의 하나인 텔단은 단 지파가 세운 곳이며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입니다.

텔단을 조금 지나 도착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 터가 있는 곳이며, 영적으로 어두운 여러 잡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을 들으시며 흠족해 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 선교의 중심지로 삼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회당에서 담임 목사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고, 베드로의 생가(베드로 생가는 큰 집터 이었고 배를 가진 선주였으니 가난한 어부가 아님을 알았음)을 지나 오병이어 교회, 바로 건너 산상수훈의 팔복을 의미하는 팔각형의 아름다운 팔복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에 세워진 베드로 수위권 교회(안에 있는 평평한 바위 Mensa Christ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잡수셨던 예수님의 식탁이라 합니다)를 보았습니다.

다음날은 여리고에서 아침식사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무너뜨린 견고한 성을 한 바퀴 돌고, 세리 장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늪은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 당시 물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간청으



로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넣어 정화시킨 엘리사 샘에 도착했습니다. 그 샘은 지금도 물이 팔팔 솟아 여리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시험산을 바라보는 기념품 가게에서는 대추야자열매의 달콤함도 시식했습니다. 다음 장소인 요단강 세레티는 성지순례자들에게 중요한 장소이어서 그런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 세례 받으신 곳, 그 귀한 장소들에서 스쳐 지나가는 주어진 짧은 시간이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곳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 드렸습니다.

광야 길로 달려 도착한 성경사해사본이 발견된 쿠파란은 에세네파 종파의 주거지이며 구약성서와 진귀한 문서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 동굴들이 있는 곳입니다.

긴 사해 길을 따라 도착한 해롯이 만든 요새인 맛사다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에 끝까지 저항하며 가족을 이끌고 3년이나 버틴 천명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성지순례 마지막 날 너무도 화창한 날씨에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성은 굳게 닫힌 황금 문, 그 뒤로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세워진 모하메드 이슬람사원 황금 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세워진 성묘교회,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도로로사) 과 함께

그야말로 은혜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겐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교회, 곧 파괴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에 세워진 눈물교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비아도로로사,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한 성묘교회 등 주님의 발자취를 짚은 반나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너무도 아쉽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겸손의 문을 지나 14각형 별 모양의 예수님 탄생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탄생지점에 손을 얹었을 때의 그 감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만큼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새겨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게끔 조각된 모성애가 강한 펠리칸 새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 드리며 사랑의 편지를 띄웁니다.

짧은 일정을 잘 소화하며 몸이 아픈 중에도 끝까지 참고 동행한 성도님들과 저녁마다 저널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하여주시고 또 낮에는 저희들을 일일이 챙기시느라 많이 고단하셨을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ork Camp 2017

I want to share my experience in my first work camp with you guys. The theme this year was “the road” and at first I thought it was silly for a theme. I didn’t know what it meant. How would you make the road the theme of a christian mission trip? What would this camp be about? But I realized that it describes the path to reach God. It describes our relationship with Jesus. Sometimes we have to go through bumpy roads, make a U- turns, even suddenly stop while other times you go straight at a stable speed. Of course, we want to always look forward and go straight to GOD, but it is impossible with the struggles and stress and worldly things that shake our vision from looking at God. Here are the different phases of the road to Jesus Christ.

Disappointment -----> Doubt

Doubt -----> Hope

Hope ----->Hunger

Hunger-----> Joy

Joy-----> Home

Before workcamp, I obviously knew about God and Jesus’ stories, but I didn’t really have passion and love towards Jesus to back that knowledge up. I would always have doubts about God. I thought of christianity as a religion I should practice and follow. Yes, we should follow what God wants us to do, but more than that, it’s a relationship. We build trust and faith when we pray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God. God talks to us in many different ways like God sightings. God sightings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or





witness God being there and I realized God is with us everyday. In this workcamp, I truly realized from the people that shared their God sightings and even in the God sightings I had that God always shines through us when we serve others. Physically, I was exhausted, sleeping on hard floors and painting for several hours every day. However, I was happy to serve others, and our crew worked together and joined in fellowship with our resident. I couldn't have been happier to serve even if I was tired. I was so happy to see people from other states as they also joined in and prayed together and had fellowship. Most importantly, I think the way I look at things has changed. I was not confident and brave enough to say I was a christian and I always worried about how others thought of me. Everyone goes through stress and hard times in life, but

unfortunately, I know that when I went through hard times in the past, I turned away from God and tried to do everything my way, ignoring God's plan for me. I was in the phase of disappointment to doubt for several months, because I was struggling with doubt. Questions about God just kept coming up. After work camp I have hope that Jesus is always with me, and he forgives me of any sin I make if I just come to him and put my trust in him. I am happier and more confident because I am loved and precious in God's eyes. I am filled with more courage to go out and be a bold Christian. Everyone that went to work camp received a rock with a cross drawn on it, and this represents forgiveness. I know that Jesus will be with me all the time, and he will forgive and support me in all the paths I take and go through in my walk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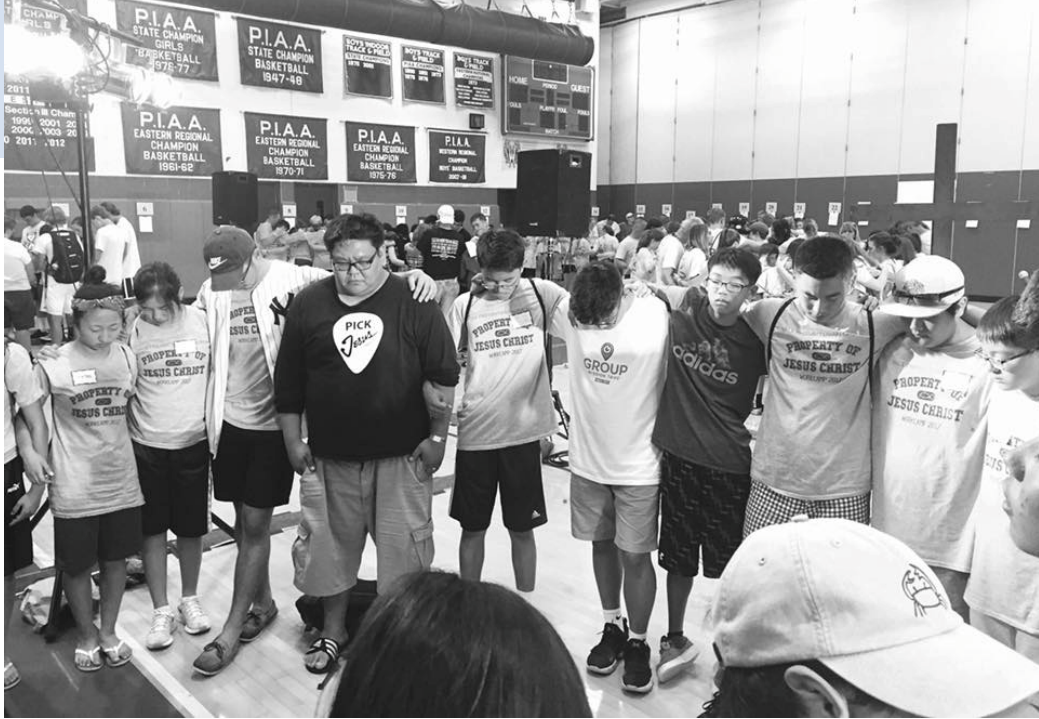
Work Camp 2017

The biggest thing that has stuck in my memory from workcamp this past week has been the welcoming spirit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there greeted me with. Hearing how crews are generally made to avoid having two people from the same church made me feel both relieved and nervous. Relieved because I wouldn't have to be stuck with everyone in youth group for the entire week for every single hour, I'm joking I love you guys but I saw it as a blessing that I could meet new people. I was obviously also nervous because I had no idea whether I would get along with my crew or not and thankfully we did.

The welcoming spirit did not stop with just my crew members but also extended to my residents as well, Pastors Sam and Jessica Cancel. They were a lovely couple who were full of so many stories of God's grace helping them through financially tough times, life-threatening medical problems and even emotionally devastating accidents that shook their family and church as a whole. Through it all, I was struck by how they chose to depend on God for everything. At times, being \$365 short on money to pay the hospital bills for chemo left them with no other choice BUT to rely on God but more impressive was their daily commitment to doing only what God wanted. Jessica told us a story of how during their backpack drive for the homeless a few

years back, she ended up having to give up a backpack she had received from going to Panama on a missions trip in her youth. This backpack was special because she had been saving it for years for the chance to go on another missions trip but she felt God telling her to give this special backpack to the last man who had shown up for the packs full of basic toiletries and food. They lived their lives caring about God's approval of their service towards them, not what the world thought and not even what they themselves wanted. As Pastor Sam told my crew on the very last day, while doing God's service, do not ever let the criticism of others to bring you down when you really did please God.

This brings me to another important lesson that I learned over the course of workcamp. I've always lived my life as a student with this motto, "As long as I try my best, God will take care of the rest". Those words, "God will take care of the rest" mean that I will get good or at least decent grades. However, on Tuesday night, our MC, Pastor Kevin left us with these words, "God doesn't expect us to necessarily be successful in worldly terms but he simply seeks our obedience". To me, it was a powerful statement because I've had many doubts about the way I have been using my time, especially these past few months as junior year came to a close. At times, I've



honestly doubted whether the time I have been spending in church was affecting my work in school as I had a few slip-ups academically. Every time, I would brush those doubts away but I realized on Tuesday, that those doubts and disappointments were still there in my heart. I had a humbling time as I told God how sorry I was for casting blame in his direction and even expecting that all my service for Him would definitely lead to academic success.

That's not what God promises. Yes, He can definitely bless you with amazing intelligence but the thing that makes him the happiest is our obedience. This doesn't mean I shouldn't try in school at all and I should just live in church all day. But it does mean the way I define success and my worth needs to be different. My obedience leads to strengthening in my relationship with God. That strengthening should in turn show itself in forms of the fruits of the Spirit: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Nowhere on there does it say a prodigy or the

next Albert Einstein. But it does have God's unconditional love written all over it.

All this doesn't mean I feel crazy different right now. I haven't gone physically blind as Saul did nor am I now on fire like the believers at Pentecost. It simply means I've taken another step in my journey with God. I just hope that the knowledge I've gained during this workcamp and the lessons I've learned continue to keep me grounded my faith, especially at my most difficult of times. I hope you all can experience the same as well.



니카라과 복음화 대회















뉴욕예일장로교회에 다녀와서...



2017년 4월 18일 오전 10시 35분! 뉴욕 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뉴욕예일교회에서 초청해 주신 것이다. 59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일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떤 이들은 그만한 일로 웬 호들갑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 아마 당신도 5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간다면, 그것도 큰 은혜를 입어 간다면 나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설레임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조금은 지루할 만도 한 긴 비행시간이지만 난 설렘에 지루한 줄도 몰랐다. 결국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하였다. 예일교회 부 목사님이신 신경호 목사님께서 마중을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첫날 밤을 뉴저지에서 지내고 이른 아침 기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2층 오픈 버스를 타고 맨하튼 시내 투어를 하였다. 큰 도시 미국의 맨하튼 시내는 듣던 대로 대단했다. 어마어마한 빌딩들 속에 사람들, 역시 큰 도시 미국이다. 이런 미국에 와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너무 추웠다. 날씨를 짐작하지 못한 실수다. 오픈카를 타고 시내를 달리는데 엄청 추웠다. 그것마저도 추억이요 재미이리라~!

다음날 아침 워싱턴 D.C로 출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등....그런데 그날은 너무 덥다. 어제의 날씨를 생각해서 많이 껴입고 갔는데 그날은 완전 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그런 기억조차

도 너무 좋다. 행복하다. 내 인생에 추억할 만한 멋진 여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날 나아가가라 폭포에서 모든 것들을 날려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 캐나다에 도착, 우리 눈에 보이는 나아가가라 폭포의 위대함, 장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그 자체였다. 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놀랍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의 말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3박 4일의 잊지 못할 여행을 마치고 뉴욕 롱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예정시간보다 3시간가량이 지연되어 도착했다. 기다리고 계신 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는가?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 주시고 계셨다. 다시 30분을 달려 숙소에 도착했다. 와~우 이런 놀라운 일이! 그때가 토요일 밤 12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내일아침 주일을 맞이해야 할 분들이기 때문이다.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예수님이 나와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았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싶었다.

예일교회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심을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보여 주셨다. 작은 교회 목사로서 받아 보지 못한 호사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뿐이겠는가! 장로님들의 섬김 역시 놀라울 뿐이다. 작은



교회 목사는 늘 구석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느껴왔었는데, 너무나도 풍성한 대접을 이 큰 나라 미국에 와서 받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일교회에 도착했다. 교회가 너무 예뻐다. 성도들의 웃는 얼굴, 온화한 미소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예배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찬송소리는 가슴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 같았다.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다. 잔잔히 가슴을 울리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먹고 자라는 양떼들이 부러웠고, 우리 예닮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빨리 목사님 닮은 목회자, 설교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

사실 고백하지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일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줄 알았다. 성도도 몇 천명은 되는 교회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우리를 초청함에 있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것을 알기에 큰(?) 교회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 놀랐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크신 목회, 사랑의 마음에 놀랐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사랑스런 모습과 섬김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고 죄송하고... 뭐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다. 은혜의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목양실에서 권사님이 차려 주신 밥상을 받았을 때 무슨 잔칫집을 방불케 하였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는 장로님들께 대접을 받았는데, 처음 맛보는 랍스타와 너무나 푸짐한 맛있는 킹크랩은 내가 여자

임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신없이 열 손가락을 다 동원해 먹었다. 체면도 무시하고 마구 먹었다. 지금 생각하니 조금 창피하긴 하다. 그래도 난 너무 맛있게 먹었기에 괜찮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왜? 그분들께서는 너무 인자하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시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담임 목사님 내외께서 우리를 존스 비치로 안내 하셨다. 롱 아일랜드의 한 비치! 너무나 아름다웠다. 넓은 대지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목사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마음으로 섬겨주신 사랑이다.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행이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과리 같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난 예일교회를 다녀와서 소망이 생겼다. 비전이 생겼다. 우리 예닮교회도 예일교회처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예일교회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기뻐다.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기뻐다. 우리 예닮교회도 빨리 성장하여 미국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여야겠다는 소망도 가져본다. 이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김중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일교회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 잊지 않고 우리 예닮교회도 여러분을 닮아가겠습니다. 짧은 지면 탓에 일일이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만남, 긴 여운...

2011년 3월, 만 8년의 광명교회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처음 이곳 화성시 병점동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10층짜리 주차타워에 3층 일부를 교회로 꾸미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존 교회가 있었지만 사정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목사님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었기에 퇴직금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교회당에서 저희 가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들어서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며, 노회에서의 어떤 여행도, 동기목사님들이나 가족간의 모임도 모두 포기하며 새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지를 넣고, 식당을 나오면서도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전달하는 등 노방전도, 축호전도, 학교 앞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여 남녀 선교회, 학생부, 아동부, 그리고 3개의 구역으로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상가교회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에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자'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개척한지 5년, 아직 교인수도 얼마 되지 않고 누구 하나 헌금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6월에 땅을 구입하고 12월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70평 땅에 총 건평 150평 정도의 2층 건

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빠른 시간에 교회를 완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판넬식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많은 빚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5월 14일(주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에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및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립니다.

뉴욕예일교회의 뜨거운 감동과 열정, 담임 목사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사모님의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 성도님들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우리교회도 닮고 싶다는 마음 가져봅니다. 금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미국 뉴욕을 이렇게 다녀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섬겨주신 사랑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뉴욕예일교회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때가 속히 오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예일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Healing)과 감사(Thanks)

정영화 사모

행복한 시간, 행복한 만남. 이 말은 열흘간의 뉴욕예일교회를 방문한 느낌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간간히 지내는 저희로서는 미국여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배준비, 주방봉사, 청소, 심방 등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좀 쉬어야 된다고 수 없이 말하지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일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열흘간의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에 가서 처음 여권을 만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짐을 꾸리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어가 가득 쓰여있는 표지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국에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모든 걱정들을 다 접어두고 쉬고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뉴욕시의 고풍스러움과 높은 빌딩들, 세계를 움직이는 워싱턴 D.C,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여준 나이아가라 폭포 등은 너무도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의 배려로 신경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성막과 아미쉬마을, 그리고 뮤지컬 요나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감동케 한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 예일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호텔까지 나오셔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오는 순간까지 직접 차로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 것은 너무도 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의 푸근한 인상과 따뜻한 섬김,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시는 성도님들의 웃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핸드폰을 열어 찍었던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 때의 일들이 필름처럼 하나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뉴욕예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뉴욕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남노회 회원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초청으로 오신 분들 함께 모임 병정 광명교회 예배실

새벽을 여는 소리



정성원 장로

새벽을 여는 소리
 어두움 물러가고 빛이 다가오는 소리
 풀잎사이 맺힌 이슬 진주악보 엮어
 잎새에 스미는 소리없는 합창

이별의 슬픔은 밑거름 되고
 배신의 쓰라림은 뜨거운 햇빛되어
 인고의 아픔과 처절한 탈바꿈의 연속 뒤에
 화려한 나비인양
 내 영혼은 비상의 나래를 펴다

새벽에 주의 말씀 침상에서 기억하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며
 내 영혼의 물 댄 동산을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

나그네는 오늘도 혼자
 새벽길을 떠나도 외롭지 않다

찬양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서로 각기 다른 은사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듯이 찬양대 또한 음악적 은사를 가지고 예배 안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지체이다. 이는 중세시대의 가톨릭과 같이 회중과 완전히 구분된 성직자 개념인 Choir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회중과 분리되어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예배를 이끌거나 대표하는 무리인 특권 의식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동일한 예배자이면서도 예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그룹이다.

특히 찬양대는 예배사역 가운데 수직적인 기능과 수평적인 기능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회중을 대신해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독립적인 그룹에서만 머물지 않고 회중의 예배를 돕는 이중적 역할까지이다.

찬양대의 이러한 특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윌리엄 후퍼(William L. Hooper)는 세 가지 영역, 즉 회중과 함께(with the people), 회중을 위하여(for the people), 회중을 향하여(to the people)존재하는 그룹이라고 표현하였다.

1) 회중과 함께(with the people)

찬양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맡겨진 음악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만 치중하다 보면 종종 자신들의 회중과 동일한 예배자임을 간과할 때가 있다.

러브라이스(A. C. Lovelace)는 찬양대가 비록 예배의 기능적 차원에서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들은 회중의 일원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강조했다. 찬양대는 회중과 다를 바 없는 예배자의 신분임을 직시하고 있을 때에야 진정한 역할을 비로소 발휘한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한 순간이라도 놓침 없이 사모하며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계시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그 이후의 모든 예배과정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다.

2) 회중을 위하여(for the people)

‘사람들의 일(leitourgia)’에서 유래된 말인 전례(liturgy)는 두 가지 속성의 일을 갖는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기인된다. 곧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종됨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찬양대의 역할도 음악목회(music ministry)의 포괄적인 차원으로 설명된다.

예배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찬양대 사역에는 감격스러운 예배 표현을 위해 데스칸트(descant) 사용, 회중과의 교송(antiphonal singing) 혹은 찬송가 각 성부를 맡아 화성적인 색채를 갖고 부르는 것 등이다.

3) 회중을 향하여(to the people)

성경시대 때에는 회당예배 중 랍비들이 말과 노래의 중간 형태인 낭송(chanting)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회중을 향하여 성경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띤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행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처럼 찬양대도 마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 선포를 담당한 선지자의 기능을 갖는다.

구약시대 예배 때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신령한 노래”(대하 25:2)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예언하다(naba)’이다. 이 내용은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들의 사역은 노래 부르는 것에 머물기보다 예언자처럼 ‘앞을 향해 말하는 자(forth teller)’로서 예언적인(prophetic) 기능과 속성을 암시한다. 당시의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있었지

만 정작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prophet)들처럼 말이다.

찬양대 음악의 목적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존 칼빈(John Calvin)도 “음악은 하나님 찬양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다”라고 했다.

레위인들을 통해 비춰진 그들의 사역에 따라 현시대의 찬양대 또한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 혹은 그에 근거한 찬송시들을 음악적인 표현 속에서 회중을 향하여 선포하는 ‘설교 기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예배와 음악” 김대권 지음 (그리심 출판사), 2008
2. 박성하, “예배음악의 개선방안을 위한 신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 2010)



특히 찬양대는 예배사역 가운데 수직적인 기능과 수평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회중을 대신해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독립적인 그룹에서만 머물지 않고 회중의 예배를 돕는 이중적 역할까지이다.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arnegie Hall?

-월드 밀알 30주년 찬양제를 함께하며



Wikipedia에서 이런 질문을 읽었습니다.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arnegie Hall?” 이 질문의 대답은요…, “Yes, practice”라고 하세요. 수 없는 시간과 인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음악인들이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hall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곳이에요. 일년에 약 250개의 공연들이 연주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arnegie Hall? 이 질문의 대답은요…” “Yes, by his grace” 저는 음악인도 아니고요. 노래도 잘 못하고요. 연습은 아주 조금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월드밀알찬양제에 참석하였습니다.

5년 전 2012년에 월드밀알찬양제 때 그 당시 유년부 아이들이 예일 성도님들과 함께 유년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 지도 아래 찬양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을 도와 드리려고 함께 참석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Carnegie Hall backstage에서 들려지는 찬양소리, 마치 천사같은 아이들의 찬양 소리는 깊은 감동이 되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꼭 참석하겠다 다짐했습니다.

5년 후 막상 기회가 주어져서 찬양을 하려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예일교회에 참석한 지 17년 되었지만 그 동안 한번도 성가대를 해 보지않은 저로서는 떨어지는 음감, 박자감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만만치 않은 두 곡과 연합찬양 성곡들을 다 배우기는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17년의 음치 박치인 저를 짧은 시간에 남들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소리로 지도하시던 각 파트 지휘자와 집사님들, 매년 모일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림의 중요성을 기도로 일깨워 주시던 찬양대장장로님, 그리고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함께 아름다운 준비 기간을 지냈습니다.

Carnegie Hall에서 찬양을 드리는 당일도 온 종일 주일 지키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Carnegie Hall에서 모여 찬양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에 저의 긴장이 풀리고 우리 순서를 기다림도



즐거웠습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Hall이어서 Hall 앞에서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계단을 우리 모두 올라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특히 힘들어 하시는 권사님들을 끝까지 옆, 뒤에서 부축하여서 모시고 함께 올라가는 예일 성도님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시킬까? 왜 이리 고생을 시키는 건가?”

잠시의 짧은 생각도 무대에 서서 찬양하던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마치 손을 잡고 주님의 웅장함 앞에 서서 그분의 Omnipresence를 누리는 듯했습니다. 오로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평안함으로 조금도 힘들지 않게 드러지는 찬양의 힘이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5년전 유년부였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 이날 상당수의 아이들은 두번째로 더 의젓해진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찬양으로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은혜였습니다. 예일 교회의 교사의 한 명으로 이 아이들과 유아, 유치, 유년 그리고 중등부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예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체험한 “Omnipresence of God”, 시간, 상황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매일 매일 느끼는 그리고 느끼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arnegie Hall에서 일년에 공연되는 약 250개의 공연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주님이 쓰신 역사에…… 그 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음을 아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사는 예일의 믿음의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Carnegie Hall은요……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Carnegie Hall

I was given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worship and praise the Lord at Carnegie Hall with many different churches. Starting from the practices leading up to the performance, we had to learn the music in Korean and for the boys, we struggled with singing and hitting the high notes. With the pressure of knowing that the acoustics of Carnegie would expose any wrong note, we practiced hard. The experience was extremely blessed. It made me feel as if it would actually be an offering that would please God, something more than the few dollars I give every Sunday. The musical aspect of the performance went well, thankfully, to keep the attention of all those listening. The orchestra sounded amazing and no one singing was off. The experience was even more blessed because it was like listening to a professional performing group and knowing that the music made was lifted up for God.

The experience felt so different from any other praise that I've lifted up. For one, the setting. We were in a grand concert hall with hundreds of people listening, but strangely, I was not really nervous like I would for school concerts. The act of singing with a choir also felt really good. It is not that we sing with empty hearts on Sunday, but on that stage, it felt that everyone was so focused on praise. It felt like a single unit even as we've never played alongside the orchestra and the adult choir.



Carnegie Hall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World Milal 30th Anniversary Grand Praise Celebration with my church was nothing less than what I had expected, which was that it would be amazing. But I saw even more than what I had hoped for through the praises: the unity of so many believers in one spot, devoting that time to just give thanks and worship to the one God that we trust and believe in. It was a blessing to have been part of the 25th Anniversary five years prior, however back then I was still weak in my foundation in God, and didn't understand how precious that time was. As I grew in my faith, I came to realize that I had missed out on something important during that day, and I wanted to understand. After looking back, I truly regretted not having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that day. But now, 5 years later, I am thankful that God gave me a second chance to relive that time. During practices with the YG choir and with the adult choir, I heard many singing voices join to make one voice thanking and praising God. It made me feel happy and grateful when I heard it, and felt that from the others around me. On the day of the 30th Anniversary Celebration, we had to leave for Carnegie after our respective services, which was hectic because of the amount of us there were

and the distance and time it took to get there. But God was with us and He guided and protected us on the way. We were able to complete our final practices thanks to Him watching over us as well. Before our church went up to sing, I was naturally nervous, but after seeing the previous churches sing with their hearts and the people there listening to all of them, I felt at ease and realized that this event wasn't only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but to willingly give our time up to the Lord to worship Him, just as we were created to do. Singing with all the churches together also made me see that we may all be different in some way, but the fact that we all came to worship Him because we are His creation and believers united us all, and can continue to do so as we grow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I was able to see His work through the chance of being in Carnegie, the dedication we put in our presentation, the presentations of the other churches, and the united spirits of both the choirs and the audience; and for that I am truly grateful that God gave me another chance to see it.





101 제자 양육을 마치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능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노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나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의 반은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당에 나가는 것은 일주일 일과중 한 부분이었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사회적 체면과 저에 일상 스케줄이었지 믿음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8년 전 어느날, 현재 10학년인 우리 아들 재현이의 머리카락이 몽큼몽큼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빠져 전신 탈모가 되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토록 똑똑하고 밝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서로들 짝궁이 되려고 다투기까지 했던 아들은 서서히 의기 소침해졌습니다.

재현이 친구 엄마는 재현이가 무슨 병이 있지 않나 해서 멀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입장에서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간 애 키우는 문제까지도 일하시는 분에게 전적으로 맡겨 사실상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재현이가 4학년 여름방학에 엄마와 함께 한달 미국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훨씬 재미있으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외모에 차별이 없고 신경쓰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덜 받겠다’ 싶었습니다.

재현이와 엄마가 이 곳에 온 지도 벌써 3년반이 되었네요. 이곳 미국에 와서 예일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아들은 7년만에 작년 10월 이발소를 처음 갔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고 너무 기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머리카락이 몇 개 더 빠지면 신경쓰이는데 7년 동안에 “나 머리카락 안나오면 어떻게 해?” 하면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았기에 그것이 더욱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이곳에서 혼자 학교 보내고 케어하느라 힘들었는지 애 엄마(강수아 집사)까지도 사경을 헤멜 정도로 몹시 아파 더 이상 제가 돈만 벌겠다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싶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자”라고 생각했고 또한, 애들이 성장한 후엔 함께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들 때문에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을 감수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하자고 했을 때도 저하고는 웬지 낯설었지만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휘자께서 너무 잘 지도해주시고 대원들 또한 한분 한분 좋은 분들이어서 지금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1 제자양육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 또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로 윤희주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로님을 보니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난생 처음 영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여겨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적고 목사님 설교도 다 받아 적어서 다시 요약하고 또 암송도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성경 한구절 외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묵상 한번 하지 않았던 제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다보니 저에게 감동이 된 구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와 닿았던 한 구절을 나누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역대상 29장 11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60평생을 살아 왔는데 주님 앞에서의 삶은 101 제자양육과 함께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배우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영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참 소중한 여겨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성경 한구절 외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묵상 한번 하지 않았던
제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다보니 저에게
감동이 된 구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101 제자 양육을 마치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갔었던 수련회 때였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한 친구의 권유로 친한 친구 6명이 따라갔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아주 약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수련회 기간 내내 저희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한 전도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우리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이름도 모르는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인처럼 살고 있던 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느껴 보았던 그 뜨거웠던 제 마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느새 다 식어버렸고 그 후로 30년 동안 저는 의미 없는 교회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예일교회를 오면서 저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웬지 모르게 교회가 너무 편했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1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언

제나 break 될 수 있는 얇은 제 신앙이 더욱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foundation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101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제 삶이 일 때문에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갔음에도 과제를 할 때나 말씀을 외울 때나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고 오히려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되새기며 감사한 생각들로 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성도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act on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101 제자훈련은 끝이 나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단단하게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단단하게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지도하여 주신 저의 mentor이신 김근태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 제자훈련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부족한 저에게 매 시간마다 새로운 변화와 새 힘으로 회복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심혈을 다하여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이 영적 훈련을 지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저에게 특별한 제자훈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1년 전, 예일 교회에 오자마자 시작된 나의 101 제자훈련 그리고 곧 이어 시작한 201 제자훈련을 다 마치었지만 어느덧 나는 제자리 맴도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 할 때 영적인 눈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두 번째 제자훈련을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매 시간의 다른 제목을 위하여 관련된 QT와 독서 그리고 찬양과 성구암송을 위한 적지 않은 시간들도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훈련은 많은 간증과 나눔이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올해에 예배부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의 훈련시간을 통하여 나를 더욱 더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코 너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나를 만나리라”.

깨닫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한 점입니다.

첫째,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을 통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서 나의 영적세계를 점진적으로 견고케 한다.

둘째, 나의 성령 충만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됨이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코 만나리라 하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며 치료와 회복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행함으로 이어진다.

넷째, 순종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도이다.

다섯째,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님의 인도함으로 언제나 찬양하며 기뻐한다.

여섯째, 이번 훈련을 통해 깨닫고, 배우며 결단한 모든 것들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 삶속에 항상 적용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201 제자훈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은혜롭게 끝까지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시작부터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에 들어가는 문을 시작으로 훈련과제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 영적 훈련과 성장,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등등.

너무나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나의 생활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막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경계의 눈이 웃음의 눈으로 변하고 교역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의 삶도 오픈하며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지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훈련원들과 함께하는 소통 속에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그룹을 이끄는 리

더십의 중요성을 배웠고 늘 낮은 데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이 늘 중심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 개인의 바름과 일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화합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그냥 세월이 지나고 개인의 성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와 반복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은혜가 되어 내 주위를 빛나게 하고 복종과 섬김과 고백과 예배의 훈련을 통해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우리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리 늘 저를 감동케 하시는지요.

이 훈련과정을 통하여 인내와 사랑을 더욱 더 견고케 하시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써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삶 속에 아내를 위한 남편의 도리와 자녀들을 위한 참된 아버지의 생활관을 다시 바로 세워 주심을,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무로서 헌신하며 묵묵히 봉사하여 주신 김광남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기도와 내조로 끝까지 응원해 줌에 감사하고 함께한 28기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생활속제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개는 하늘천자 조차 쓰지 못합니다. 그저 풍월만 읊을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40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교인이란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풍월이나 읊어댄 건 아닌지 진심으로 자성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잇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저 주님께서 옆에서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시길 바랐으며 주신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하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사모하려 합니다. 몇 해 전 종신교수가 되고 나서 기도와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꿈을 잃은 것만양 공허함 속에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나의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발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해 달라는 그 잊혀진 기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언제부터가 사람의 시각과 상식으로 비전을 재단하고 그저 빵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에 만족해 하던 구태의연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큰 비전을 담대히 품습니다. 얇은 피로 또는 주변을 다 희생시키는 사람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을 즐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아시아인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터무니 없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삶, 제게 주어진 소소한 것도 기쁨으로 충실히 섬기는 삶, 그렇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려 합니다.

집안 일을 할 때도 민영이 라이드를 할 때도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할 때도 또는 성가대에 설 때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예비하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40 ‘불혹’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적 나이뿐만 아니라 불혹의 신앙을 지니려 합니다. 혹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이번 훈련을 통해 배우고 결심한 것들을 어떤 환경속에서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삶,
제게 주어진 소소한 것도
기쁨으로 충실히 섬기는 삶,
그렇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려 합니다.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먼저 13주 동안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101을 할 때 가졌던 부담감으로 201을 쉽게 시작하지 못했는데, 같이 하자는 권유로 시작한 201은 역시나 바쁜 나의 생활에 부담이 되었고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하는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과 한 과 지날 때마다 얻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201 제자훈련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고 12과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훈련을 통해서 왜 내가 제자훈련을 해야 했는지 깨닫게 하셨다.

첫 과에서 만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은 급한 일로 쫓겨서 중요한 일을 놓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선 순위를 바꾸게 하였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는 나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하기 힘들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듣지 않고 살았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성령 충만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죄성이 바뀌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배웠다.

파인애플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깨끗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았던 나의 파인애플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나는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내 마음의 집을 주님께 명의 이전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 나는 오래된 옛 생활의 찌꺼기들이 버려지게 되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서 예배에서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나의 내면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진 영적성장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제자훈련이 끝난 뒤에 나의 옛 생활로 돌아갈까 걱정되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큐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갈 것이다. 나는 험난한 곳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다. 또 쉬운 길을 걷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려 드릴 것이다.

다시 한번 201 제자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힘이 되어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
말씀과 찬양 시간,
매주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체험의 시간



201 제자훈련을 통하여 감사한 것은 매 과정마다 항상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것과 할 수 없는 순간순간에도 끝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나의 첫 기도제목은 어떤 주변 환경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제자훈련이 은혜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혜와 용기 주셔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힘주신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 드린다.

201제자훈련을 인도해주신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하나 되어 정말 열심히 또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힘이 되어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 말씀과 찬양 시간, 매주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었다.

영적 일기 쓰기를 통해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게 하며 다시금 주님과 만나던 첫 사랑을 깨닫게 하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음을 참으로 감사한다.

그 동안 나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분노, 겉모습으로 포장되었던 나의 내면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엔 13주가 긴 시간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벌써라는 시간으로 바뀌고 아쉬움과 고마움으로 가득했던 시간으로 되었다.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죄 사하심을 통해 기쁨의 날을 살아가기를 나 자신에게 약속해 본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어쩔 수 없이 찬송가를 부르며 외우다 보니 남편도 어느새 흥얼거리며 같이 따라 부르며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QT는 나에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
 암송구절은 나를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살게 이끌어 주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밀려 시작된 나의 201 제자훈련은 한 마디로 'Oh! My God!'이었다.

체계적인 QT훈련을 별로 해 본 적도 없었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일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성경구절 암송에 찬송가를 외워 부르는 과제들을 직접 마주하니 좀 먹먹했다. 유행가 가사는 잘 외우고 따라 불러 봤지만 찬송가는 예배 시간에 책을 펼치고 따라만 불러 봤지 외워서 부를 생각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찬송가를 부르며 외우다 보니 남편도 어느새 흥얼거리며 같이 따라 부르며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QT는 나에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또 암송구절은 나를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살게 이끌어 주었다.

독후감 역시 쓰는 동안 책이 주는 교훈과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 주었고 나중에 수업시간을 통해 적용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처음에 과제물에만 급급하게 몰두하던 나의 시각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점차 하나님을 향한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갔다.

지난 몇 년 동안 초신자라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안일하고 나태하게 둔해지도록 방치해 둔 나의 영을 성령님이 매순간 두드리고 깨워주고 계심을 느꼈다. 모든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고 나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신앙인으로써 그 동안 이기적인 반항아처럼 살았다. 앞으로 나는 또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나의 습성이 또 다시 고개를 내밀지도 모른다. 하지만 Oh! My God(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

그 동안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느라 수고하신 목사님과 환상적인 우리 반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의 귀중한 시간과 모든 나눔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하는 훈련



과거에 잇을 만하면 물어오는 아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1~5등으로 답을 요구했었습니다. 저의 답은 1-아내, 2-자녀들, 3-부모님, 4-삶에 필요한 물건, 5-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을 준 후로 내용이나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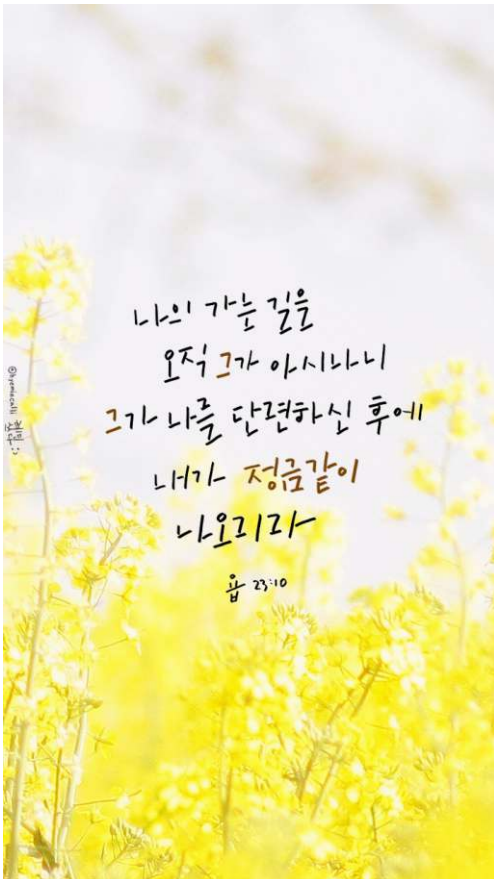
그리고 제 10과 고백의 훈련을 위해서 숙

제를 하던 어느 날 밤에 교제로 받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난 후에 많은 생각 속에 있던 중에 제가 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고, 답의 내용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내 꼴찌 5등 자리에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1등으로 올라가 계셨습니다. 놀라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알게 된 것은 201제자훈련을 하면서 그것도 결정적으로 고백의 훈련의 준비과정인 숙제를 끝내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교제의 책 안에서, 나의 마음 속에는 참 많은 방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심을 믿는 나이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왔었지만 그 어느 방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들어왔다 나가셨다 하시나?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날들이 더 많은가?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이 아닌 벽장 속에 계셨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고통의 독이 잔뜩 묻어있는,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는 많고도 많은 가시나무들이 뒤엉켜 자라있는 벽장, 작은 새 한 마리도 날아가 가지에 앉아서 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의 벽장, 그 벽장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셨습니다.

25년도 훨씬 넘는 시간을,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곳에서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자리도 마



다하지 않으시고 돌아와 거하시느 분이 계시니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흉악한 일을 당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밤에 제 마음의 벽장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찢기고 찢림 받을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로 하여금 덜한 고통 가운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도 기나긴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201제자훈련을 거치며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받은 대로 제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정돈 하여 여러 방들도 청소하며 새롭게 가꾸어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디 벽장에서 나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원도 거니시고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방에서 거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힘이 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증상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약 또한 주셨기에 감당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제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쾌활함과 명랑함과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는 약! 찬양이라는 약에 의지해 모든 것 이겨내고 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걸어가기에 애써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텅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벽장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제 28제자훈련 동안 베풀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잠 16:9)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가 많이 없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1,201 제자훈련을 차근차근 매일 매주하며 많은 감사가 생겼습니다. 201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경험과 배움, 생각들을 글로 써서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것들도 다시 꺼내어 반성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능력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감사 드립니다.

아직 배워가며 고쳐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역사 하시는 것 만큼은 확실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감사 드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저를 여러 가지의 일들에서 자유 하게 하셨습니다.

201 제자훈련도 마지막으로 끝나거나 저의 성경훈련은 계속해서 나아 갈 것입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남편을 사랑으로 보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내 주위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 드립니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것들도

다시 꺼내어 반성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능력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감사 드립니다.

25주년기념 성경필사



올해 25 주년 창립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신약 과 구약 성경 전서를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필사하여 완성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지난 10주년과 15주년에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렸는데, 25 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5주년을 기념하여 성경 필사를 하기로 결정이 나자, 교육부 위원장이신 송광수 장로님의 지도하에 필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부용 집사, 정정숙 권사 그리고 장훈 집사가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필사에 대하여 광고와 함께 성경 필사 신청을 2월 11일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1주일 만에 필사 신청이 끝났기에, 2월 25일 주일에 성경 필사 용지를 분배하기로 예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송되어 오는 필사용 신약 성경이 항공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여서, 한 주를 연기하여 3월 4일에 필사 용지를 마침내 목자를 통하여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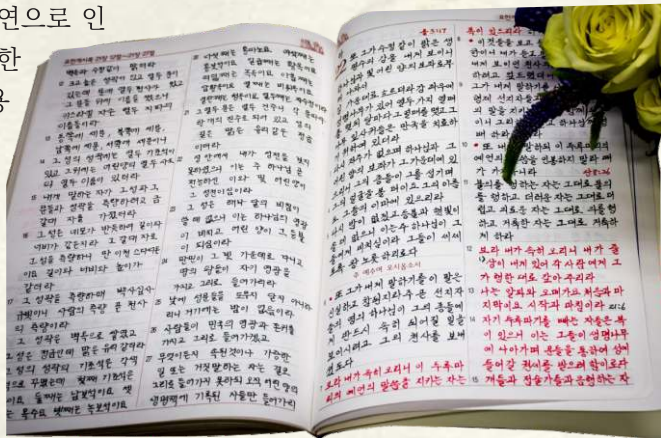
필사용지와 함께, 김정색과 붉은색 볼펜을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 오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전과는 달리,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볼펜이어서, 필사를 전보다 쉽게

할 수 있었다.

4월 1일 주일까지 필사를 마치기로 예정되었으나 일정이 바뀌어서, 한 주 빨리 필사를 마치고 3월 25일 주일까지 제출하도록 급하게 광고하게 되었다. 다행히 채문권 목사님께서 목장 연락용 카톡방을 3월 5일자로 개설하여 주어서, 신속하게 목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필사용지 반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부분의 필사용지가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최종 마감일인 3월 28일 수요일까지 전달되어 필사가 완료되게 되었다.

3월 31일 토요일에는 필사위원 전원이 교회에 모여서, 제출된 모든 필사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서 순서대로 정리함으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완성하게 되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가득 찬 필사본을 소중히 정리하면서,





필사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성경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2018년 예일 장로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성경전서 필사 참여 현황

사순절 릴레이 금식 및 기도와 맞추어 진행 된 이번 성경 필사 중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성경전서 필사에는 300명이 넘는 수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모름지기 전교인의 행사가 되었다.

예찬 목장이 117장으로 가장 많은 장수를, 예향 목장이 12권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을 필사하였고, Youth Group 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김은희 권사님은 시편 마지막 44장을 홀로 필사하여 개인으로 가장 많이 필사하신 분이 되었다.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평생토록 간직하고 기억할 경험과 감동이 될 것 같다.

4월 2일 월요일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신 윤승진 목사님 편으로 한국의 출판사에게 전달되었고, 합본이 끝나는 필사 성경책은 창립 기념 주일에 맞추어 봉헌되게 되었다.

목장/부서	참가자	권수	장수
교역자	9명	1	27
사랑	18	9	29
물댄동산	11	1	42
예담	12	4	44
에벤에셀	10	1	21
예가	21	2	55
브니엘	10	2	28
쉐키나	12	1	66
소망	11	3	80
샬롬	12	2	40
화평한	16	2	47
코이노니아	17	2	72
은혜	11	5	63
샤론	14	2	48
예찬	14	7	117
운유	20	2	52
믿음	10	2	44
예향	11	12	67
감사	16	5	67
새벽이슬	18	1	40
Y.G.	42	2	88
C.C.M.	16	2	39

예찬최다 장수 (117 장)
 예향 최다 권수 (12 권)
 Y.G. 최다 참여 (42 명)
 김은희 권사 최다 필사 (44 장)



마더와이즈 ‘자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인 자녀양육이라는 것을 이번 공부를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풀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남독녀 외동딸로 자란 내가 미국에서 연년생을 키운다는 건 맨땅의 헤딩처럼 순간순간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서툴러서 잘못 가르친 적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생각보다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며 잔소리와 걱정들로 세상속 엄마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가까운 남편에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내 안의 자신을 “자유”편을 통해 하나님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깨어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실패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엄마, 아내, 딸이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튼튼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생명들을 가지인 내가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 밖,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부터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시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 나눠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공부하고 나서

결혼 7년이 넘어 설아를 얻은 저는 난임으로 고생하던 시절,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좋은 엄마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없는 엄마가 아니었기에 지혜롭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구요.

그러나 설아를 낳고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것인지 막연해지기만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이에게 개입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이를 방관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은숙 집사가 마더와이즈 공부를 권유해 왔습니다. “자유”가 책의 타이틀임을 알고, 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사랑의 양동이를 채우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이 조금만 무심해도 서운했고 아이가 저보다 아빠를 찾으면 속상해 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양동이를 남편과 아이에게 채우려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저의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또 해답을 찾은 듯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아내이자 엄마인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선 내 삶을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드러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훈육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할지 몰라 소리만 높아지기 일쑤였고 아이를 체벌한다는 자체가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더와이즈를 통해 올바르게 적당한 체벌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를 들어야하는 체벌, 또는 여러 특권을 박탈하는 체벌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도록 제 안의 저를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설아는 저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 살 것이며, 그렇게 그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짓된 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나, 세상에 속한 나로부터의 자유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살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아이의 주인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하나님. 마더와이즈 자유를 통해 참 자유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주 동안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사모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내 자신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느끼는 자유, 자식을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양육하는 자유,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때 오는 자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의 삶을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두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세계 큰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더 멋진 훌륭한 엄마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더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공부하는 동안 진정한 자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양동이 그릇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험악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세상에서 배우는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삶이

였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 큰 믿음을 가지면 분명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하기에... 아이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더욱 중요한 전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오래 참고 또 참아주고, 조건 없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저의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늘 칭찬해 주시면서 예쁘다 착하다 똑똑하다 늘 최고라고 길러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나의 자아를 포기합니다.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지켜보시고 알고 계심을 믿고, 우리 자녀와 가족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의뢰 하면서 남편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부활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 가족이 되길 주님께 맡깁니다.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느끼는 자유,
자식을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양육하는 자유,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때 오는 자유.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음.

성탄절 / 신년



새가족



부활절



어린이 주일학교



창립주일



감사절



전교우 신앙수련회



전교우 신앙수련회



체육대회



체육대회



찬송가 외워부르기 대회



밀알찬양제



성지순례



볼리비아 단기선교



볼리비아 단기선교



바자회



교회수리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 2012년 Super Storm '샌디' 후 5년을 지나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사 37:24)

“BRUISED BUT NO BROKEN”

“UNTILL EVERYONE COMES HOME”

이 두 사인은 롱 비치에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간 뒤 폐허같이 된 집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싸인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은 남부 뉴저지와 뉴욕을 강타했던 초대형 슈퍼스톰 샌디가 지나갔던 날이었습니다.

10월 28일은 유난히 날씨가 맑고 화창했으며 하늘도 청명했습니다. 아침부터 CITY HALL에서는 전화로 또는 가두방송으로 12시 전에는 모두 롱 비치를 떠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1988년에 스톰 길버트, 2005년에는 카트리나, 2011년에는 아이린 등의 스톰이 있었으나 별로 큰 피해가 없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 정도로 알고 롱 비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보름과 만조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 BAY와 OCEAN이 만난 100년 만



에 왔던 스톰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롱 비치로 들어가려 하니 다리가 막혀 있고, 다른 곳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큰 총을 메고 일일이 검문을 거쳐서야 들어오니 완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배들이 큰 길에 밀려 내려와 있고, 쇼핑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서로 뒤엉켜있고, 유리가 깨진 집과 나무가 넘어져 덮친 집 그리고 가로수가 넘어져 수백미터 떨어진 큰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모래와 흙이 1층을 꽉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허리만큼 차도록 물이 들어왔다 나가서 모든 물건과 보일러, 드라이 크리닝 기계, 옷 등이 젖은 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더럽고 추한 내 안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이…….

전기와 물이 없어 힘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자원봉사 정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언제든지 누구나 물을 가져가도록 쌓아 두었고요, 따뜻한 음식을 제공받는 줄은 길었지만, 샌드위치 정도는 곳곳에 서



각 단체들이 나와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기차역 앞 모퉁이에 앉아 노숙인 같이 샌드위치를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롱 비치의 큰 빙상경기장에는 소모품들, 통조림, 청소용구 등 날씨가 무척 추웠으므로 두꺼운 스웨터와 장갑, 코트 등을 가득 쌓아 두고 열마든지 가져가도록 했지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가게에는 물에 젖어 너무 무거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깨끗이 치워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의사, 캐나다에서 온 검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체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집을 다니며 봉사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이티, 일본, 중국 등지를 다니며 지진이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에 가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전기와 난방이 없던 차디찬 가게에서 김밥, 비빔밥,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해주셨던 성도님들, 친지, 교회, 교협 등의 사랑과 정성으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샌디 피해를 입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는 다 듣고 아는 바입니다. 저희도 모든 건물보수와 지질검사들을 잘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롱 비치는 지금 Home Elevation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기존의 집을 큰 지렛대를 넣어 들어올리는 공사입니다. 시정부가 경비의 절반은 부담하여 지원하고 이미 1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상가와 주거지가 함께 있어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맨하튼에서 기차로 50여분 거리이므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타운입니다. 2013년에는 2.2마일

의 Board Walk를 4천만 달러를 들여 보수하였고, 이번 겨울에는 방파제를 더 높고 길게 해서 더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보수했습니다.

“BRUISED BUT NO BROKEN”

이 팻말을 보며 미국이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이 감사하며 시편 37:24 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상했을 뿐, 조금 상처 입었을 뿐, 조금 멍들었을 뿐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의 손이 붙들어 주셨으므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할 때 회복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UNTILL EVERYONE COMES HOME”

이 팻말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 아버지 집인 그 Home에 이를 때까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귀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찾아서 (장로 임직을 받으며)



칠 흙 같은 어둠이 산천초목에 내려 앉고 수 많은 별들이 하늘에 흩뿌려져 제 각각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따라 유난히 별은 반짝이고 냉랭한 기운이 허공에 감돈다.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숨을 죽이고 날카로운 눈빛만 어둠을 헤치고 사방을 살펴본다.

오늘도 나는 정 이병과 한 조가 되어 야간 매복에 들어갔다. 내가 위치한 능선 좌편으로 백마고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철원평야가 펼쳐지며 멀리 대성산이 있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보아 새벽 2시쯤 되었던 것 같다. 그때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섬광이 밤하늘에 번쩍었다. 나는 흔히 있는 일이라 '또 어떤 짐승이 지뢰를 밟았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정 이병이 나에게 말한다. '박 하사님! 저길 보세요.. 아불싸! 계곡 아래쪽에 있는 그 위치는 우리 매복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재빠르게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김 이병이 꼬꾸라져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은 멀쩡하게 내려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너는 왜 살았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랬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언뜻 보니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터지고 또 설치해 놓은 크레모아가 발사되었던 것 같다. 황급히 김 이병을 당겨 업으려고 군화 신은 발목을 잡았는데 손에 몽클하게 뜨끈한 것이 만져졌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김 이병을 들쳐 업고 산등성이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대학교 운동선수로 체격도 좋았고 힘이 좋은 친구였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김 이병을 등에 업고 올라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내 등에서 김이병은 마지막 남은 숨을 몇 번 몰아 쉬었다. 그 때마다 피를 쏟아 내었고 그 피는 나의 목덜미에서부터 온 몸으로 흘러 내렸다. 산등성이에 올라선 후 곧 바로 연락을 취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온 몸은 피에 물들었고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범벅이 되어 내 몸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왠지 손발이 저러오며 땅을 밟아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 한동안 들었다. 피와 화약냄새로



인하여 나는 전쟁의 참
혹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가시지 않고 내 코
끝에 남아서 나를 괴롭
혔으며 나는 담배로 냄새
를 달래야만 했다. 내
코는 아직도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사건 후 부대가 온통
난리가 났었다. (중략)

얼마 후 우리 내무반
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
는 병커 안에 있었다.
그곳에서 김 이병은 가

고 없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의 관물대
앞에서 소대원들이 추모 예배를 드렸다. 그런
데 소대장님이 나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켰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그래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 중에 그만 울고 말았다. 나뿐만 아니라
온 소대원들이 모두 울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보게
되었다. 지금도 궁금하다. 한 번 만날 수 있
으면 소대장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때 왜! 나
에게 기도를 시키게 되었는지를...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예일교회
에서 신앙생활을 시작
하고 지금까지 지나오
면서 어느 때부터 나의
믿음의 뿌리를 짚어보
게 되었다. 그 때마다
군에서 세례 받은 것과
이 장면이 연상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이렇게 되는 듯
싶다. 언더우드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릴 따름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속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져본다.

팬 나는 그 의미를 몰랐다. 아니 별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리곤 잊어버렸다. 그 후 먼
길을 돌고 돌아 예일교회로 오게 되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였을 때를 나는 결코 잊
을 수 없을 것 같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많이 기다리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말 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 눈물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흠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세례를 받은 나를 하나님
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턱없이 부족한 나인지라 감당키 버거우나 하

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을 택하시고 쓰임 받
게 하시니 감사드릴
따름이다. 하나님 앞
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직분 잘 감당하
도록 오늘도 속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져
본다.

주님!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누구나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났던 귀한 시간들이 있다. 내게도 그 같은 시간들이 아주 귀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시간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최근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을 2월초쯤으로 기억한다. (나는 기록을 잘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아주 몰두하여 은혜를 받으며 읽고 있었다.

책에서 그 목사님은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뜻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오셨다 고한다.

“너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런데 목사님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실 수 없으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셨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목회를 훌륭히 하고 계신 분이이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나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웬지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하나님은 잔잔히 내게 이렇게 물어 오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선한 것을 믿느냐?”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쉬웠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연이어 내게 물으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선한 것을 믿느냐?"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네게 좋은 것일거라는 것도 믿느냐?”

나는 답했다.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네,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나는 읽고 있던 책을 다시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며 내게 잘 잤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네, 잘 잤어요.”

하루의 시작에 예수님과 나는 첫 대화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게는 샘 솟는 기쁨이 있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 보는 순간이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뻐다. 내 입에서 는 시도 때도 없이 찬양이 흘러 나왔다. 아! 기쁘다.

갑자기 나는 며칠 전 책을 읽던 중 하나님 과 나는 대화가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고백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게 느껴졌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고백은 진실된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연합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으셨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늘 하나님 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께서는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 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것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연합하 고 부족한 나에게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맛 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네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네게 좋은 것일거라는 것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소소한 행복



어느 날 주섬주섬 미처 준비되지 않은 옷들을 입고 무작정 산으로 가는 일행과 함께 몸을 맡기며 떠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산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초행길에 나선 나를 산행 대장님과 팀원은 12월의 겨울 추운 날씨에 고난도가 있는 트레일 11마일을 5시간 만에 첫 만남을 하고 하산하였다. 나는 모른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 줄. 팀원들이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게 된 사실. 그럼에도, 첫 만남은 순조롭게 사뭇 흐뭇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이루어졌다. 이 만남으로 인해 맺어진 인연들,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끝없는 수평선이 그어진 에메랄드의 푸른 바다를 무척 좋아한다. 그런 나에게 너무나 다른 세계의 물인 산으로 마음을 움직여 만난 산새들은 나를 설레게 한다.

같은 산속을 매번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트레일을 하며 만나는 설렘. 제일 먼저 만난 이정표, 파랑 노랑 빨강 하양 녹색 등등 트레일 마크들. 앞으로 자주 만나서 아주 많이 친해져야 했다. 이 친구들이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여 주어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떨어질 수 없는 고마운 작은 벗들

이 될 것이다.

어느 날엔가는 부슬부슬 얇은 비가 내리는 아침, 산 위에서의 빗방울하高的 만남은, 걸어 올라갈 때 귓전에 비껴가는 빗방울소리에, 나의 여리고 여린 마음이 아름다운 빗소리와 비에 흠뻑 젖음이 있어도 오히려 고요해지면서 감탄해 마지 않는다. 내가 감히 주님의 흠뿌리는 물방울을 이 산 위에서 맞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해도 되나요 하고.

겨울 산을 오르던 어느 날, 솜사탕과 같은 눈꽃송이들을 만난 날, 아...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너무나 설레고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내 어찌, 이 귀한 눈꽃송이와의 만남을, 온통 산길이 아직 아무도 발자국이 없는 하얀 눈으로 덮인 이 산길을, 우리들이 밟는 발자국으로만 남는 이 산길을, 아주 작은 새가 날아와 지나치는데, 이 아름다움을, 이 높은 곳에서 주님과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이곳에서... 주님 제게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주시네요 하며 감사한다.

청아하고 맑은 겨울 산의 오름에서, 기운은 영하 4, 5도쯤 뚫으리라, 저 깊은 곳으로 오르던 이날 만난, 발가벗은 나뭇가지에, 가는 산길마다, 온 천지에 빙하 꽃으로 조각해



놓은 주님의 숨씨를, 작은 폭포수에, 시냇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다가 얼어붙은 고드름들, 내 어찌 경탄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요한이 말씀한 맑고도 푸른 수정으로 만들어진 천국 문에 통과하여 영원한 우리의 집, 주님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겨 디딜 때, 감히 저를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저 높고 깊은 산속에는 또 다른 넓은 평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네. 그 평지 위에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으며, 빨리 이만치 다가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손짓거리, 금빛으로 가득 찬 주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게 하는, 펄럭이는 억새풀들의 동산, 아 정말 이 동산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겹도록 사무치도록 빠져들여간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이와와 만남은 어땠고. 산들바람! 산 위에서 불어주는 이 바람, 숨털같이, 작은 잎새가 흔들어주는 것 같은 바람, 쉬지도 않고 나를 흔들어주며, 속삭이네. 올라오느라고 더울 텐데 시원하게 해줄게 하고. 고맙고 정겨운 산들바람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네.

처음부터 겨울 산을 올라간 산등성이엔 나뭇가지들만 있었고, 나뭇잎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산은 늘 나뭇잎이 없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죽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계절이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는 따듯한 봄이 되니, 한 잎, 두 잎, 잎새들이 나뭇가지에 옷을 입는데, 꽃망울들의 개화와 아주 미세하게 작은 잎새들의 터지고 퍼져 나오는 행진들, 장단의 속도를 감히 가늠할 수 없네. 더운 여름날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온 세상의 푸른 잎새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 서로의 모습을 맘껏 뽐내며, 기지개를 아주 크게 피면서 나도 여기 있노라고 하겠지요. 겨우내 봄내 움츠려 있다 나오니까, 산길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 나도 좀 봐달라고

이 높은 곳에서 주님과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이곳에서...
'주님 제게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주시네요' 하며 감사한다.



손짓하네요. 이 수줍음과 설렘은 수풀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 떨리는 맘과 손으로 다가가 어루만지며 속삭이네요.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푸르고 우거져서 하늘을 덮어 우리들에게 더위를 가려주고 식혀주고 맞아주는 고마운 잎새 벗들이네. 그 사이 우거진 수풀을 넘어 하늘이 그리워 보고 싶네 할쫘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고개를 들어 보니 벌써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을 나뭇잎들. 붉은 빛,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의 단풍잎새들 사이로 걷노라면 주님의 영원한 정원에서 노니는 것 같은 황홀함에, 나의 소소한 행복에, 남은 세월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자 한다.

어느 날 아름다운 큰 나무가 있길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사진을 찍게 됐네요. 당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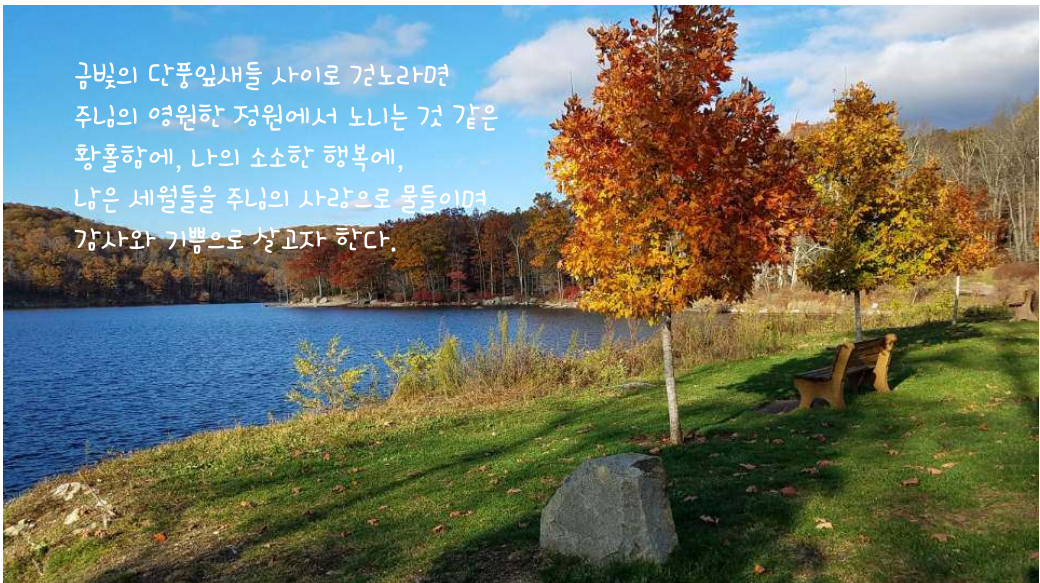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저만 잘났다고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나무들에게 배려심이 없었죠. 나무들도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저가 큰 실례를 나무들에게 했지요. 사진 찍으려고 나무들 앞에서 온갖 취한 자세들이 나무들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넘 파렴치한 제 모습에 어디로 숨었으면 했어요. 저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나무도 겸손한데 감히 그 앞에서 저의 드러난 허영심과 오만함에 추태를 부린 것에 몸 둘 바를 몰랐어요. 나무를 가슴으로 안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절제하겠노라고 했어요.

거닐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작은 꽃나무와의 만남은 어떡하고요! 겸허해지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미세한 꽃나무들. 정말이지 어느 정도로 작은가 하면요. 옷을 꿰매는 바늘처럼 가늘고 실처럼 꽃잎들이 꽃 가지에 맺혀 있어요. 꽃잎 색은 하양도 있고요, 남보라도 있고요, 노랑도 있고요, 연녹색 꽃잎도 갖추고 있어요. 아... 이 꽃들이야말로 제게 얘기하네요. 주님과 동행한 삶은 설레임이며 고마움이며 기쁨이며 큰선물이라고, 하기에 소소한 행

복을 만끽해요.

산에 오르기에 앞서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면 푸른하늘, 흰구름이 물감 붓으로 흐트려 놓은 것 같은 하늘, 맑고 구름한 점없는 하늘, 조용히 우리를 처음부터 반겨 맞아주는 하늘. 산길을 오를수록 넓은 가슴으로 안겨주는데, 산길을 올라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서 와 오늘도 보여줄게 많아, 너희를 기다렸지. 저 위에 떠있는 해님을 봐봐. 너의 불그레하게 달아오른 볼을 어루만지며 스쳐 지나는 잔잔한 산들바람도 느껴봐. 한주간도 힘들고 고달팠던 날들 모두 이 창공에 다 쏟아 붓고 행복 가득히 가슴에 담아 가 하네요. 하산할 땐 가슴에 주님의 행복을 가득 채워 버거운 맘으로, 기쁘기도 하고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만남과 배움하여야 할 시간엔 맘이 서운해져요. 언제 다시 만나려나 감사의 눈물이 나네요. 비워진 맘과 가슴에 오직 채워진 주님의 약속들 꼬-옥 하나씩 간직하고 꺼내어 가면서 일상을 비우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갑니다.



금빛의 단풍잎새들 사이로 걸노라면
주님의 영원한 정원에서 노니는 것 같은
황홀함에, 나의 소소한 행복에,
남은 세월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자 한다.

우리교회에 와서 맞는 두번째 마을찬양제



작년에 이어 다시 우리 마을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작년에 큰 상을 받아 나에겐 좋은 추억의 값진 경험이었지만, 사실 올해는 지휘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선교회 행사로, 설악 학교행사로 개인적인 일들로, 잠깐의 휴식도 가질만한 여유가 나에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라는 생각에 다시 지휘를 맡았다. 능력도 없는 내가 이렇게라도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는 아름다운 곡이지만 박자도, 음정도 까다로워 가르치는 동안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곡이다. 연습하는 내내 쉬운 곡으로 바꿀까를 수십번 고민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곡을 연습하면서 어느 누구도 불평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부정과 불평 대신 “우린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다 돼.”라는 긍정의 말들로 마을식구 서로서로가 토닥이며 격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지켜있던 나를 위해 모두가 주신 배려와 사랑이었음을 조금 지나서야 깨달았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가장 어린 내가 가르칠 때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듯한 식구들의 그 눈빛과 진지함에 힘을 내어 더 열

심히 가르칠 수 있었으니 우리는 참 팀웍이 좋았던 것 같다.(아이들마저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 차례가 되면 먹던 간식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해 자기 몫을 다했다.)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말이 있다. 곡을 부르시며 “부르신 곳에서”는 자신이 불러야 할 곡”이라고 하셨던곽정희 권사님과 이은경 집사님의 말이다.

그랬다. “부르신 곳에서”는 우리의 간증이였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보낸 두 딸의 간증이요,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 보낸 누나의 간증이요, 뼈를 깎는 아픔 중에서도 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딸의 고백이었다. 단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였음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차 오르는 가슴으로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끈끈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또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동안의 힘들었던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떠올랐고 뭔가 말 할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났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대상의 의미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올 한 해 아픈 상처가 많았던 우리 마을에, 반창고를 붙혀주시듯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난 이번에도 정말 값진 경험을 했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연습하는 내내 따뜻했고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했다.

주님의 사랑방식



10월의 어느 날.

옆집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함께 새벽 예배 가지지 않을까요?” 하고 권하는 말에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밤을 새워서 뭘 할 수는 있어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은 못해요”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은 저의 이 사소한? 핑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제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11월 초. 뒷마당 울타리 곁에 죽은 나무들과 잡초들을 제거하던 중 포이즌아이비의 독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심한 가려움과 함께 목과 얼굴은 별경게 붓고 양팔에는 온통 물집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럽고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은 그야말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면서 며칠을 보냈지만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응급치료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아왔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려워도 긁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다와서 누워 있는데 김권사님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새벽예배에 같이 갈 것을 또 권하셨습니다. 그 순간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 “주님께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시는구나.”

저는 바로 순종하고 다음날 11월 15일 첫 새벽예배를 드렸고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 식구들은 저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하면서 증세는 호전되었고 처방약을

다 먹었을 때 쯤엔 상처의 딱지도 없어지고 가려운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제 몸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별 증상이 없다가 새벽이면 양 팔이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비몽사몽 눈을 뜨게되고 가려운 곳을 실컷 긁다보면 어느새 잠은 다 달아나고 시계를 보면 3시 반 언저리인 것입니다. 제 시계 알람은 4시 45분에 맞춰져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알람소리에 잠을 깬 기억이 없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가려운 증상을 통해 저를 미리 깨우시고 속시원히? 긁으며 잠을 깨서 맑은 정신으로 새벽예배에 가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그 새벽에 깨달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내가 새벽예배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깨워주실 것 같다고 하자 김권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쳐 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깔깔거리고 웃는 두 여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던 그날은 추수감사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 새벽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쟁투”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은 난해한 예언 중의 하나이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대체 누구이고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주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약 200년 간의 역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예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언을 좀 더 깊이있게 읽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당시의 역사를 따라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페르시아(바사)의 왕들은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후, 서방 그리스 본토까지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한다(2절). 그러던 중 페르시아는 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일하고 동진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여 멸망하게 된다(BC 330). 알렉산더는 전투개시 4년 만에 지중해 연안, 중동에서 인도의 서북부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였다(3절).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열병에 의해서 갑자기 죽었고, 그 후 알렉산더 제국

은 좀 더 약한 네 왕국으로 분할된다(4절). 이 중 두 왕국이 팔레스타인에 접경을 두고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남쪽에 위치한 왕국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이고,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 시리아 지역의 셀류쿠스 왕국이다. 다니엘서 11장 5절 이하에서 말하는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은 바로 이 두 왕국의 왕들을 말한다.

이 두 왕국은 끊임없이 격돌하였는데, 11장 6-20절은 300-187 B.C. 사이의 두 왕국간의 충돌의 역사를 그린다. B.C 252 프톨레미 2세는 그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 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정략 결혼시켜 양국 사이의 평화조약을 추진 중, 그것을 질투한 첫째 아내가 베레니케를 암살한다(6절). 베레니케의 남동생 프톨레미 3세가 왕위를 계승한 후 누이의 죽음을 보복하러 셀류시드 왕국을 치고 일부 영토를 빼앗는다(7절). 이 때까지 유다 땅은 남방 왕국인 프톨레미 왕국의 영토에 속하였다. 하지만 셀류시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서 프톨레미 왕국을 누르고



유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10-19절의 내용이다.

16절의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는 안티오쿠스 3세가 유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정략 결혼으로 프톨레미 왕국을 그 수하에 두려는 계획에 실패하고(17절), 그리스 본토까지 전진하려는 계획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에게 패배함으로 실패한다(18-19절). 이후 왕위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어지는데 이 때가 B.C. 187년이다.

그 이후 21절 이하는 악명 높은 다음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27절의 “이 믿을 수 없는 두 왕”은 북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와 남 왕국의 프톨레미 4세인데, 조약의 협상시 상대방을 배신하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애굽을 침입하나(29절), 해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고 (30절), 돌아가는 길에 그 화살을 유대인들 에게 돌린다). 이 때가 B.C. 168-167년이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신이라 높이며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못마땅해하던 중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다가 그들에게 화

풀이를 한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그리스 왕국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장려하였지만 타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처음으로 유대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돼지를 제사로 드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없애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절기를 취소시키는 등의 정책을 폈다(31-32)절. 이때 유대사회는 그들과 손을 잡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 하는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된다(32-35절).

이때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그저 도움을 조금 주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34절). 이후 안티오쿠스 4세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심에 따를 뿐이다(36-39절).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같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주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유다지역을 둘러싼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읽을 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처음으로 유대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돼지를 제사로 드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없애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절기를 취소시키는 등의 정책을 폈다.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인간끼리 맺는 화평조약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유한한가를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임을 보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의 대적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자면,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전통을 강조했던 유대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이었다. 유대주의는 전통과 제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에 갇혀 예수님을 받아 들이지 못했고,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여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배척하였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전통을 너무 강조하는 기독교의 권위주의와 인간의 지성과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둘 다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등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벨탑을 다시 쌓아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시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도전받고 동성 결혼이 미국 정부에서도 합법화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지 마음에 느껴진다.

로마서 12: 2절 말씀이 생각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는 시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필요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였으면 좋겠다. 예일교회 성도들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나의 건강 지킴이 레시피(Recipe) 팔보약차(八補藥茶)



- 제가 2015년에 첫 번째 시리즈로; 나의 건강 지킴이 레시피(Recipe) 생강홍차"를 예수마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 2016년에 두 번째 시리즈로; "가족사랑 건강주스 일명(一名) 장생해독(長生害毒) 주스"를 소개했습니다.
- 2017년에 세 번째 시리즈로; 팔보약차(八補藥茶)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1. 팔보약차(八補藥茶)를 만들게 된 동기

저는 오래 전에 위대한 자연요법이란 책을 읽고 '여주'가 당뇨에 특효가 있는 약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뇨는 오랜 세월이 걸쳐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병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고, 치유가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당뇨를 앓고 있거나, 생활습관 병 (성인병) 같은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활주변에서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타계하는 분들을 보아 왔고, 당뇨로 고생을 하는 분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에 행여 당뇨 같은 질병에 걸려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여주>를 식용으로 처음 시도했을 때는 나물로 만들어서 상당기간 반찬으로 먹어왔습니다.

'여주'는 한국의 쓴 쪽 보다 더 쓰기 때문에 쓴 맛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냥 식용으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약

2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구서 삶거나, 데쳐서 각종 양념을 가미해서 나물로 만들어서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물로 만드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과정을 거처야 하므로 오래 지속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궁리 끝에 차(茶)로 끓여먹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주의 쓴 맛을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계피, 대추, 양파를 가미하여 여주까지 합쳐서 4가지 재료로 차를 끓여서 복용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주' 특유의 쓴 맛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 차의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친김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잘 알고 있었던 한약재인 '결명자, 구기자, 우엉, 오미자'를 가미해서 보약과 같은 여덟 가지 재료를 가미해서 만든 차(茶)란 뜻으로 "팔보약차(八補藥茶)"라고 이름을 붙여서 벌써 복용해온 지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맛도 좋거니와 그 효능이 상당히 좋아서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 팔보약차(八補藥茶)의 재료명 및 재료의 특성



① **여주**: 영어로 'Bitter Melon'이라고 합니다. 자연 인슈린이 풍부해서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먹는 인슈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작은 오이처럼 생긴 ‘인디안 여주’ 라고 불리는 것이 효과가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② **결명자**: 여러 가지 약효가 있으나, 그 중에 <눈>을 맑게 하는데 특효가 있는 한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복하시면 <눈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나타나기 쉬운 백내장, 녹내장 등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구기자**: 신장 강화, 피로회복, 원기회복, 정력 강화, 간 기능 강화, 피를 맑게 하고 힘을 돋구는 기능 외에 많은 효능을 지닌 한약재입니다. 인삼, 하수오와 함께 3대 명약에 속합니다. 진시왕이 불로초라고 할 만큼 죽을 때까지 애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④ **우영**: 저는 일본의 ‘나시모요 시모리’ 의사가 집필한 일일일식(一日一食)이란 책을 탐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영은 흙 속이라는 무척 가혹한 환경 속에 묻혀서 자란 뿌리채소로 우영의 주성분이 인체에 매우 이로운 <폴리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한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영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모든 식물 중에서 최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우영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 년 전에 등산동호회 모임시에 2리터 큰 보온병에 우영차를 정성 드려 준비해가서 컵에 나눠드리면서 우영이 콜레스테롤에 특효가 있다고 소개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님으로서 월남전에 파병되셨다가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영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해두시고 물을 마시듯이 장복하고부터 그 지긋지긋했던 피부병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⑤ **오미자(五味子)**: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른답니다. 여러 가지 약효 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면역력 향상,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 종류 어떤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한약재입니다.



⑥ **계피**: 계피와 꿀이 만나면 만병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널

리 알려진 유명한 식품인 동시에 약재로, 향신료로 동양인, 서양인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⑦ **대추** : 한약재를 다릴 때 감초만큼이나 많이 쓰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약의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⑧ **양파**

3. 팔보약차를 만들고 보관하는 방법

팔보약차를 끓일 때 재료비율은 각 재료를 같은 비율로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제 경우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한 말 용기(10 Litter)에 각 재료를 각각 가볍게 한 주먹씩 넣고 끓입니다. 계피는 막대계피를 3~4개 정도 넣습니다. 양파는 작은 것은 한 개, 큰 것은 반을 잘라 넣습니다.

끓으면 즉시 불을 낮춰서 1시간 정도 달

인 후에 불을 끄고 식힙니다.

식힌 차 물을 1 리터 눈금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약 1~2 주간 정도는 품질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팔보약차:八補丸藥茶>를 한번 끓이면 대개 2주간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한말 용기로 끓이면 1 Litter 용기로 대개 8병 정도 나옵니다. 약 2주간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은 <100% 포터블 생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팔보약차(八補藥茶)의 효능과 체험사례

눈 건강이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눈의 피로도 말끔히 사라지고 시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무릎 아래 장단지 부분에 가려움증이 늘 있어 왔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건조한 겨울이 되면 가려움증이 성가실 정도로 심했지만 팔보약차를 음복하고 난 후 부터는 이런 현상(現狀)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꾸준히 장복하시면 아토피도 극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의 기능과 통변사정이 팔목(刮目)할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팔보약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나누며 건강을 지키시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력교정술의 종류

시력교정술이란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이 망막에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가 필요한 눈을 각막의 일부를 절제해 교정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시력교정 수술로는 라식(LASIK)과 라섹(LASEK)이 있습니다.

라식 수술의 경우 각막 절삭기 또는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 앞부분을 얇게 잘라 뚜껑을 만든 후 아래의 각막을 원하는 도수만큼 자른 뒤 다시 제자리로 덮어주는 수술입니다. 라식은 라섹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섹은 알코올을 이용해 각막의 상피만을 얇게 벗겨낸 후 치료용 콘택트렌즈로 회복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도수에 비해 각막의 두께가 얇아 라식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민한 신경조직을 벗기기에 통증이 심하고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각막신경의 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시력교정술

라식과 라섹으로 원거리 시력을 교정할 수 있으나 40대 이후의 시력 교정술은 좀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거리 초점이 흐려지는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원거리와 근거

리의 초점 전환이 느려짐, 눈의 피로감이나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노안 교정으로는 돋보기와 다초점 안경 또는 다초점 콘택트렌즈의 처방으로 빠르고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의 사용 외에 노안을 수술로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노안 라식수술(Monovision LASIK)과 다 초점 수정체 수술(Multifocal IOL)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노안 라식 수술은 두 눈 중 한 눈은 먼 곳을 잘 보이게 다른 한 눈은 가까운 곳을 잘 보이게 만들어 수술 후 양쪽 눈을 통해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라식 교정술입니다. 그러나 입체감이나 거리감의 손해를 줄 수 있고 적응 기간이 길다는 점, 수술 후 노안이 더 진행될 경우 노안 교정 효과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안 라식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적응이 가능할지 수술 전에 미리 모노비전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체험해 본 후 수술 결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수정체 수술은 이미 백내장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백내장 수술시 삽입





하는 인공 수정체를 노안 교정이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함으로써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술 후 빛 번짐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이른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근거리 시력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의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안구건조증, 각막 혼탁, 야간 빛 번짐, 시력 퇴행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안구 건조증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건조증은 각막 표면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에서 손상 받은 각막조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조증은 보통 수술 후 한두 달이 가장 심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체로 회복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뻑뻑하고 시린 증상, 불편한 이물감, 피로감 등의 증상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눈을 휴식시키고 인공 눈물의 사용,

에어컨이나 히터의 노출 최소화, 오메가3 섭취, 온찜질 등이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술 후 6개월 이상 외출시 선글라스를 통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력교정술이 보편화되면서 정기검진 오신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술에 관해 문의하십니다. 검안의로서 정기검진 뿐만 아니라 수술에 관한 상담, 안과와의 연계 치료, 수술 전후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검사 후 수술 받은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의사들의 숙련도 축적으로 라식 성공률은 90년대에는 65%에 불과했던 게 이제는 90-98%의 성공률에 달합니다. 그러나 라식과 라섹은 빠른 시간 안에 시력개선이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에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수술에는 득과 실이 따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질환의 여부, 기본 시력상태, 각막두께, 나이, 직업과 생활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 가능 여부와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진학상담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학생부터 대학생을 가르친 경험과 또한 전국 대학 입학 사정관과 대학진학 컨설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진학을 도우면서, 한국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준비부족과 마지막 순간에 대학교와 학교 전공과목을 바꾸거나 정한다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방황하면서 전공과목을 두번 세번 바꾸거나 그러므로 졸업이 늦어지거나 또는 졸업은 제때 하는데 대학교 성적을 엉망으로 만들어내서 취직도 못하고, 결국엔 집에서 백수로 지내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좋은 대학원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시간만 보내는 대학원 진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학 진로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이 싫어하는 옷을 입히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녀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대학진로에 어드바이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국대학과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라이선스가 있는 대학진학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않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 대학진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계획이 어떤 모 대학교를 타겟으로 하여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 공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여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백인 부모들이나 중국인 2세 부모들의 교육관처럼 학생들의 미래를 더 일찍 설계하는 것은 좋지만 늦어도 7학년 때부터는 좀 더 조직적으로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7학년 학생들도 수학과 과학과정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며 또한 명성있는 중학교들은 정책적으로 7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끔 준비를 해줍니다. 그 말은 7학년과 8학년에 받은 학교 내신성적들과 리전트 점수들이 고등학교 성적표에 들어가서 대학교 입시전형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세대들은 대부분이 1세대들이 하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몸으로 부딪쳐서 이겨내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많은 정보를 통하여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본인에게 잘맞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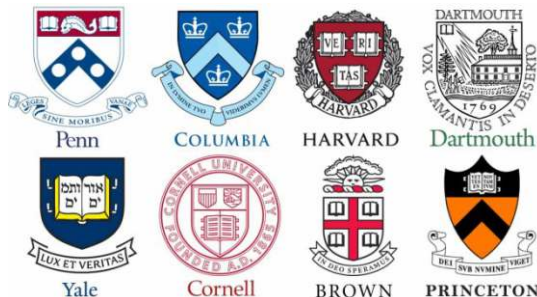
위에 자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큰 꿈을 갖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공부와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엔 중간에 그만두거나 졸업이 늦어지거나 또는 졸업 후에도 학교성적이 안좋은 관계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해주어야 할 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전하는 정신,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그리고 대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요즘에 대학 준비는 늦어도 7학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학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7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목을 듣고 리전트 시험을 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학년 때 Earth Science 또는 Biology 그리고 Algebra 또는 Geometry 클래스를 들으면 7학년말에 그 교과목 학년말 성적들과 학년이 끝나가는 6월 중순에 치르는 리전트 테스트 성적들이 고등학교 성적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라는 테스트로 학생들의 진로를 정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고 또한 어느 대학에 관심이 있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적인 최고의 명문대학을 가야한다거나 이리이러한 전공을 해야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30-40대 학부모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부모님들도 다들 옛날 생각만하고 그냥 그냥 하다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바빠서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는지, 제대로 AP 과목을 선택했는지, 언제 SAT I/II 와 ACT 시험을 치르는지, 학교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아니면 우리 애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러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전공과목보다 한 단계 또는 두세 단계를 낮춰서 입학원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ROTC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군복무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2년 또는 3년 계약으로 군대를 갖다와서 정신차리고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늦어도 중학생 때부터 부모와 학생이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한 계단 한 계단씩 쌓아서 준비하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스스로 잘 준비하여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의 올바른 사용과 습관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 온 1세대들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대책은 뒤로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현실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며 일해 왔습니다.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며 살다 보니, 몸이 어디가 아픈 지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 때부터 약 봉투와 약의 종류가 차츰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몸에 어떻게 좋다더라 하고 입소문이 나면 경쟁적으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집안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먹다 남은

약이나 건강 식품들이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남은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먹다 남은 약을 주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약의 형태가 주사제, 정제, 캡슐, 시럽, 연고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제

정제로 만들어진 약들은 의약품에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압축하여 만들어지므로 일정 기간 동안 약의 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나도록 제조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삼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각을 내거나,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고 또는 씹어서 먹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용하면 일시에 약물이 방출되어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제 그

대로 복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코팅이 되어있는 약은장에서 흡수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인데 씹거나 가루로 드시면 위에서 생성되는 위산으로 위장 장애와 약효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 조심해야 합니다.

* 가루약

식도에 문제가 있는 환자처럼 알약으로 먹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루로 만들어 조제하게 되는데,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와 약사의 조제 하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 시럽

환자에게 흡수가 잘되고 효과가 빠르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령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추천됩니다. 약의 처방전 봉투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사용법과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약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복용하라고 하는 것을 복용하면 빠르게 장에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깜빡 잊고 식사 후에 먹게 되면, 위에 섭취된 음식물들을 소화시킬 위산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과 식욕촉진제, 구토억제제와 같은 경우의 약물입니다.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약의 경우에는 지방과 당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식후에 바로 복용하는 약은 철분을 많이 포함한 약과, 소염 진통제 등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약입니다. 이 약들은 음식과 함께 흡수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식사 후 30여분 정도 있다가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은 일부 비타민 종류입니다.

약을 복용해도 기대했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용법, 용량, 사용시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컨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10

투자의 기본과 주의점

제가 19년 동안 투자상담과 자산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어디에 투자해야 고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플랜 없이 높은 수익만 기대한다면 장기간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투자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수익을 좇기보다는 목표를 보고 투자해야 손해위험을 잘 피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목표한 수익과 투자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Goals Based Investing” 이라고도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 세부한 Financial Planning을 받으면서 먼저, 투자기간과 자신의 재무적인 상황이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계획한 투자 목표와 목적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할 수 있는 goal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조금 더 자신 있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만 해도 예금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어도 자산관리가 잘 되었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떤 금융투자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4종류의 Asset Class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Cash / Cash equivalents: 현금, 국채, 기업어음, 유가증권, 머니 마켓 펀드

이 asset class는 단기간 또는 긴급자금(emergency fund)으로는 괜찮지만 장기간 놔두게 되면 인플레이션(inflation)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돈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2017년도(10월까지) US average monthly inflation rate는 2.12% 입니다. 이 asset class에서는 지금 1% 이상의 이자를 받기 힘듭니다.

2) Fixed Income: 국채, 공사채 (Agency bonds), 지방정부 채권 (Municipal bonds), 회사채 (Corporate bonds), CEF (closed -end funds), emerging market debt,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뮤추얼펀드, Preferred securities

Fixed income에는 여러 종류의 투자상품이 있고 또 위험도 다양하니 잘 알아보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2.34%이며 독일 10년 국채는 0.38% 입니다. AAA 기업채권은 평균 3% 조금 못되고 신용등급이 BBB보다 낮은 채권 (junk bond / high yield bond)의 경우, 평균 6%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컴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municipal 채권도 있습니다.

Traditional 채권은 아니지만 고정수입을 주는 MBS, ABS, preferred securities, closed end fund, 그리고 다양한 채권 뮤추얼펀드도 income으로 많이 사용되는 투자 상품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portfolio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는 때일수록 채권은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므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채권과 이자가 낮은 채권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만기채권은 만기기간까지 가지고 계시면 원금은 보장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장기간 채권을 피하시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인컴이 필요한 분은 bond ladder strategy를 사용하면 전체 portfolio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를수록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으로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3) Equities: 주식, 미국 예탁 증권(ADR), Closed-end funds, ETFs, Foreign ordinary equities, Mutual funds, Options, Structured products

Equity class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높은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또 그만큼의 위험도 따라옵니다. 주식은 single company risk가 있으니 투자에 경험이 많은 분과 high risk tolerance 가진 분들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많은 금액이 한 주식에 투

자가 되어 있다면 option strategy를 사용하여 risk를 manage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투자 하실 때 제일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의 정보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부자 정보 (inside information)이 있다면 더욱 더 그 정보로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Insider trading penalty는 최고 20년 형과 최고 50억 달러의 벌금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보통, 펀드매니저가 없으므로 뮤추얼펀드보다 fee가 낮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장점이 있어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ETF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leveraged ETF는 2배 또는 3배 지수 performance를 따라 가고 fee도 높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Asset class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region, industry, sector, market cap selection은 performance에 아주 큰 factor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난 5년을 보면, 미국 마켓은 90% 수익을 냈지만 영국은 31% 밖에 내지 못했고, 그리고 gold에 투자 하였다면 26% 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5년 return (2017년11월15일 기준)

Region: US (S&P500) 90%; Japan 147%; Germany 87%; Mexico 17%;



China 68%; England 31%

Sector: Financial 111%; Technology 150%; Healthcare 110%; Energy (2.50%); Gold (26.50%)

4) Alternative investments (대체투자):

Hedged funds, Managed futures, TIPs, Commodities, REITs, Real Estate, Private equity funds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으로만 portfolio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alternative investment가 빠지면 안될 만큼 Portfolio manager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asset class 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주식 또는 채권 마켓과 비교해 상호관계가(correlation)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에도 좋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risk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일단 많은 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또 건물관리, tenant 관리문제, 그리고 현금을 원하실 때 현금화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REITs 는 높은 배당금도 받고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주식같이 상장에 거래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Gold는 Commodities의 한 종목이며 포트폴리오 구성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Gold가격은 \$1277.38/oz (2017년 11월 15일) 이고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은 2011년 8월에 \$1917.90/oz (intraday high)였습니다.

Gold에 투자하시면 배당금이나 이자는 없지만 포트폴리오 hedge 또는 inflation

hedge 로는 좋은 종목입니다.

Fun 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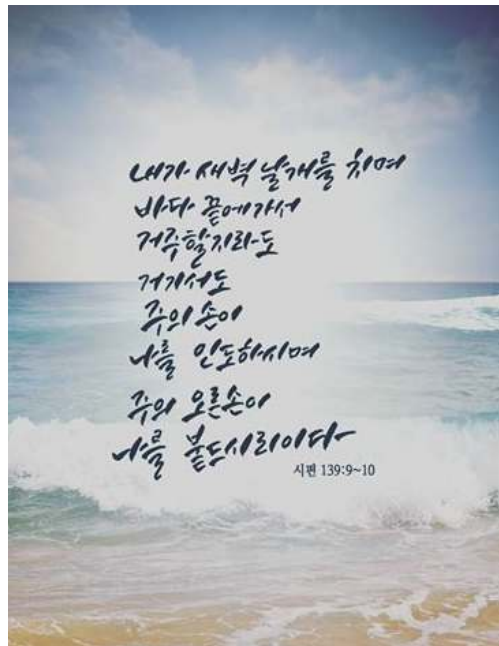
100만불 만들기 얼마나 힘들까요?

30년 동안 매달 \$442.38 투자하고 연 10%의 수익을 내면 100만 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하루에 \$15불만 저축해도 한 달에 \$450불을 모을 수 있고 이 돈을 투자하여 연 10%의 return만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 직장인이 65세가 될 때 100만 불의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기간이 10년 밖에 없다면 매달 \$4,881.74 을 투자해야 똑같은 100만 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factor이니 일찍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장기간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

Chronic Kidney Disease



신장은 우리 몸 속의 중요한 기관으로써 혈액 속의 부산물과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산물과 수분, 노폐물이 모여 소변이 만들어진다. 또한 나트륨, 칼륨, 인, 칼슘 등과 같은 전해질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항상성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신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수분량과 전해질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신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며 여러 중요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he kidneys are organs in the body that are designed to filter the blood by ridding the body of its natural waste products, excess fluids, and toxins. These wastes, fluids, and toxins are combined to form urine. The kidneys also serve to regulate the amount of electrolytes in the body such as sodium, potassium,



phosphorus, calcium, and other chemicals. The kidneys need to be working properly in order for there to be a proper balance of fluids and chemicals in the body. When the kidneys do not work properly, an imbalance occurs and many critical bodily functions can be affected.

만성 신부전증(CKD)은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온 상태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그 밖에도 신장의 기능 감소를 야기하고, 심지어 신장의 조직에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만성 신부전증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신장 손상이 지속되어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혈액투석(우리 몸의 피를 일부 뽑아서 그 속의 찌꺼기만 걸러서 버리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Chronic kidney disease (CKD) is a condition in which the kidneys lose their ability to filter, which can be harmful to one's health. While people lose some kidney function as a natural part of aging, there are many conditions that can cause an unhealthy amount of kidney function loss and eventually irreversible scarring of kidney tissue. If the CKD is not managed, it can progressively worsen to the point that the kidney can lose all function.

Patients will then require the use of dialysis, an artificial way of filtering the blood, to maintain life. This is known as end stage renal disease.

일반적으로, 인구의 10- 15%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신부전증은 당뇨와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 외에도 가족력, 비만, 흡연 여부, 약물,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In a conservative estimate, CKD affects about 10-15% of people. The most common causes of CKD are diabetes and high blood pressure. Other common risk factors include a family history of kidney disease, obesity, smoking, medications, and having certain other medical conditions.

만성 신부전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증세는 신장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 말기에 이를 경우에 다리가 붓는 증상, 메스꺼움, 구역질, 어지럼증, 빈혈 혹은 골 질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배뇨 기능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장애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In the initial stages of CKD, there are usually no symptoms. It is not until the kidney function is severely impaired that generalized symptoms develop such as swelling of the legs, loss of appetite, increased sleepiness, nausea, vomiting, confusion, difficulty thinking, anemia, bone disease, and other significant changes in mental status. Surprisingly, even in advanced kidney disease,

/ 만성콩팥병 체크리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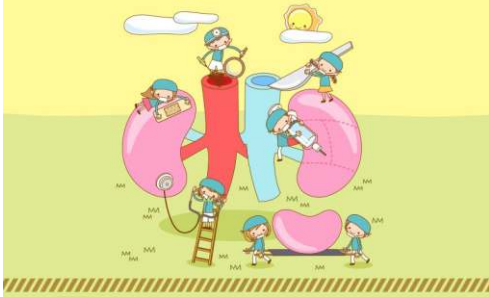
- ✓ 혈압이 올라간다
- ✓ 눈 주위나 손, 발이 붓는다
- ✓ 붉은 소변 또는 탁한 소변을 본다
- ✓ 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 ✓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본다
- ✓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
- ✓ 쉽게 피로해진다
- ✓ 입맛이 없고 몸무게가 줄어든다
- ✓ 몸 전체가 가렵다
- ✓ 집중력이 약해진다

이 중 **한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콩팥병**을 의심하고 병원방문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관리법 ??

1. 철저한 혈압 조절(130/80mmHg)
2. 저단백 식이(사구체여과율이 30mL/min 이하인 경우)
3. 단백뇨 조절
4. 철저한 당뇨 조절
5. 적절한 운동(저강도 유산소운동,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6. 금연
7. 칼슘·인 대사 조절(인 섭취 제한, 칼슘염 복용)
8. 적절한 체액 상태와 칼륨 평형 유지
9. 지질 이상 치료(식이요법, 약물치료)
10. 빈혈 치료
11. 신독성 유발 약제 노출 주의



urine output can remain normal or near-normal. However, this can be misleading because while urine may be formed, the kidney has not sufficiently filtered out the body's waste products.

만성 신부전증은 정기적인 소변검사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CT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요로 질환, 신장결석, 그 외에도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신장 조직의 이루를 떼어내어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는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기능 감소나 이상의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CKD can be diagnosed through the use of standard blood and urine tests. At times, your

doctor may also recommend certain imaging tests including ultrasound or a CT scan to determine if there are any blockages of the urinary tract, kidney stones, or other abnormalities that may be decreasing kidney function. In certain cases, patients can be referred for a kidney biopsy, a procedure in which a small amount of kidney tissue is removed and examined under microscope to determine the exact kidney disease that is present.

만성 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장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 같은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신장의 필터 기능을 현격히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약물 사용을 초기에 중단하게 되면, 신장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손상이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 기능 감소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 상실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악화요인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CKD first requires determining the underlying cause. For example, there are certain medications that are known to cause kidney damage or decreased blood flow to the kidneys, resulting in decreased filter function. If these medications are stopped early enough, the kidney damage can sometimes be reversed. But in most cases when CKD has developed, this is not reversible. The main goal of treatment at this point is to prevent the progression of CKD by controlling the underlying cause.

새로운 세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새롭거나 신비롭거나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상상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무슨 일에 도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때로는 용기가 없어 이루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기억되는 일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bucket list를 만들어 시간을 쪼개고 또 돈을 쪼개어 그 간절함으로 삶의 시간 시간에 열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의 남아 있는 삶의 시간에 거기에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사는 것 만으로도 하루하루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의 연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

돌이켜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딱히 해 보고 싶었거나 가지고 싶었던 일들이 없이 지나간 것 같다.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이 되거나 남이 흔히 하지 않는 취미를 갖는다거나 좀 특별한 일에 열중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생기고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list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list 중에 실천한 일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란 운동인데 내가 늙어서 숨만 쉴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시작한 운동이다.

하지만 막상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고 나니 굉장한 체력과 에너지를 요하는 분야란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운동이라 표현한 것이다.

첫째 기본 장비로는 wet suit과 오리발, 장갑, 물안경, 부력 조절기, 호흡기 산소통이다. 거기에다 물에 가라앉기 위해서는 10에서 25lb 정도의 납덩이를 허리나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각자의 몸무게와 스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35 lb 정도의 무게를 몸에 걸쳐야 하는 것이다. 그 무게를 지탱해서 걷는 것 자체가 보통 체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물 위에 떠 있을 때 부력조절기에 넣었던 공기를 빼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밑으로 갈수록 수압이 올라가므로 서서히 내려 가면서 코를 막고 숨을 불어 압력 평형을 이뤄줘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귀 통증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아마추어들은 보통 30에서 40feet 정도에서 즐기는 것이 보통이다. 호흡방법과 산소통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분에서 60분 정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일단 잠수에 성공하게 되면 신비한 무중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내 몸에 걸쳐진

물 속에서는 방향감각이 없는 관계로 나침반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침반 없이도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설령 잃는다 해도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30 ~ 35LB 무게는 커녕 내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야 말로 스쿠버 다이빙의 백미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절대 방심 하여서는 안 된다. 물속에서는 방향감각이 없는 관계로 나침반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특히 탱크 속의 산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물속에서의 행동은 지상에서보다 굉장히 느리고 뒤로 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 돌발적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Buddy와 함께 하여야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운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규칙을 잘 따르고 자만하지 않으면 참 매력적이고 멋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충분히 즐기고 올라 왔을 땐 2기압으로 압박받은 온 몸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시원함과 나른함으로 일등급 맛사지를 받은 기분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몇 번의 교육과정만 이수 하면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짧게나마 스쿠버 다이빙에 관하여 소개 했지만 무수히 많은 다이빙에 관련된 분야가 있다. 무슨 운동이든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지 못하면 글로써 느낌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

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침반 없이도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설령 잃는다 해도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만 할수 있다면 응답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힘이 들 때도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론 업어도 주시는 주님이 라는 Buddy가 있으니 말이다.

이젠 물속에서 무중력의 경험을 느꼈으니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고 그 날이 왔을 때 주님과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신비한 세계를 느낄 준비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평삼주오를 편다.

예닮 목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목장 “예닮” 목장입니다.

이진배 집사님/강문구 권사님이 목자로, 이규희 권사님이 총무로 섬기십니다. 저희 예닮 목장은 행복한 목장과 함께 1마을에 속해 있고요, 저희 두 목장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입니다. 1마을지기이신 지재홍 장로님/이연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푹푹 뭉친 마을인데요, 오랜 기간을 같은 목장과 마을로 지내다 보니 이제는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 및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며 지냅니다.

특히 매년 추수 감사절 찬양제 시즌이 되면 온 마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도 찬양제 준비로 매주 마을로 함께 모여 맹연습 중입니다. 저희 마을은 사정상 매년 소수정예로 출전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마을이 상을 받아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거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 한 관계로 목장 모임에는 주로 어른들만 모여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직장 여건상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목장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함께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합심하여 많은 목장/마을 식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목원들 힘차게 달려 오셨습니다.

예닮 목장으로 모여 일 년 동안 부족한 목자를 많이 도와주신 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목원들이 다 되시길 빌며 사랑합니다!!



브니엘 목장

성경에서 브니엘이란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씨름을 했던 곳이며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된 곳” 입니다. 브니엘은 야곱의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목원들의 신앙고백이 담겨있는 브니엘 목장을 소개합니다.

2018년 첫 목장예배로 모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이라 분위기가 서먹할 수 있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목원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 벽장에 넣어 두었던 것들을 하나, 둘 꺼내어 서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목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더욱 목장이 말씀과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모임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마을지기 지재홍 장로님과 이연희 권사님, 그리고 목원들에게 싱싱한 생선을 대접하기 위

해 바쁜 가운데 직접 낚시하시는 전용수 집사님과 열정을 다해 수고해 주시는 총무 전미경 권사님, 과묵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이윤재 집사님과 권병숙 집사님, 글로리아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최병철 집사님과 박복임 집사님, 그리고 비록 해외로 잦은 출장을 다니시지만 목장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배상준 집사님과 배제이미 집사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차금주 집사님과 정미혜 집사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감정이 풍부해 눈물을 보이시는 한수연 집사님, 그리고 똑딱 목장의 음식을 만들어 내고, 분위기를 띄우는 정미자 집사님 등 한 분 한 분 귀한 브니엘 목장의 목원들입니다.

올해 브니엘 목장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장,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목장, 기도하고 섬기는 목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가 목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2마을의 예가 목장입니다. “예가”란 “예수님의 가족”의 줄임말 입니다. 목장 안에서 한 가족같이 섬기는 따듯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장이 되자는 마음으로 “예가” 목장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사랑의 예가목장” 이라고 부른답니다.

예가 목장은 마을지기, 목자, 총무를 비롯해서 모든 목원들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목장입니다. 목장모임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의 장이 됩니다. 밤 12시를 넘기기가 부지기수여서 무박 2일 목장모임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지기 김현수 장로님과 따듯한 이포영 권사님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 손정민 집사님/손지현 권사님 부부, 바쁜 중에도 최선을 다해 돕는 총무 유성민/신혜선 집사님 부부가, 믿음 좋은 손동희/이미자 집사님,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서은순/정기호 집사님, 김두성 집사님/강미혜 권사님 부부, 신동인/채영남 집사님, 그리고 자칭 한 때는 "날라리"였지만 지금은 순종하며 믿음이 푸릇푸릇 자라나는 김미선 집사님, 문주경/문애자집사님부부, 정동주/정애숙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사정상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음을 이번 목장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짧게 목장 사랑을 하자면, 예가목장은 1) 사랑이 많고 2) 기도 응답이 많고, 3) 새가족이 예일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섬기고, 4) 간증과 체험이 많고, 5) 부담은 없고 은혜는 가득한 목장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일의 모든 성도들께 덕이 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쉐키나 목장

안녕하세요! 저희 쉐키나 목장을 소개합니다. 쉐키나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라는 뜻으로, 제가 201 교육을 받을 때 알게 되었으며 뜻이 너무 좋아서 저희 목장이 처음 생기게 될 때, 목장이름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쉐키나 목장은 3마을(마을지기 :김준택 장로님/김미라 권사님)에 소속되어 있구요, 구성원으로는 목자인 오성섭/오연숙집사가정, 총무인 전용수집사/전미경권사가정 그리고 목원으로는 정윤중/정주현집사, 김태언/김수연집사, 홍성민/홍 영집사, 김태근/이은경집사가정입니다. 목원들 전부가 믿음이 튼튼하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라 정말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은 특히 기도가 풍성한 목장입니다. 합심기도 때가 되면 모든 목원들이 말씀

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지세기도(다른 지체를 세우는), 목원 가정들의 기도제목 등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목장은 찬양을 사랑하는 목장입니다. 목원들 대부분이 할렐루야찬양대(김태근집사, 정윤중집사, 오연숙/오성섭집사)와 글로리아찬양대(전미경권사, 홍성민/홍 영집사, 김태언/김수연집사)에서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작년 추수감사절 찬양제에서 같은 3마을의 화평한목장과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은혜도 받고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해 감사 찬양제가 더 기대지기도 합니다.

끝으로쉐키나목장이 하나 되는데 있어서 마을지기이신김준택장로님의 지도와 김미라 권사님의 따뜻하고 자상하신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목원들이 형제, 자매 되어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한 목장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쉐키나목장 파이팅!!!!



소망 목장

소망목장을 소개합니다. 아주 젊은 가정으로 구성된 소망목장은 힘든 이민의 삶속에서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제목을 같이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드네요. 그동안 소소하지만 많은 행복한 추억과 감사했던 순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장이 있는 날이면 여러 가지 맛난 음식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애써서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배려와 나눔이 있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첫 만남부터 생똥맛게 외쳐온 "분가", "분가", "분가"했지만 아직 못했네요.^^ 한목장이 두목장이 되는 날은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ㅎㅎ.. 소망목장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짝가정의 예배의 회복

을 위해서, - 자녀들의 건강과 새 학기를 위해서, -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서, - 새 가정의 교회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소망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시71:14).

마지막으로 부족한 목자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1교구 채문권 목사님과 큰형님처럼 등 두드려주시며 힘주시는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님과 좋은 친구처럼 항상 옆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총무 한정현 집사님과 힘들어하며 지쳤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는 현숙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망 목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7).



살롬 목장

살롬~~~!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롬 목장입니다. 살롬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목원들의 삶과 예일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한결같이 섬기시는 목자 한 진 집사님과 총무 정정숙 권사님의 인도 하에 언제나 웃음과 미소가 있고, 섬김과 사랑, 찬양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장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두 분의 권사님(정정숙, 김순영)이 임직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두 가정 (연브라이언/연주희, 오진호/최상주)을 보내주셔서 목장이 더 든든해 졌습니다. 특별히 살롬 목장은 기도의 응답이 많은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자녀들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를 통해 우울증이나 신앙생활의 권태에서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비치데이”에는, “Yun’s Private Pool House”에서 소망목장과 함께 4마을이 연합목장예배로 모였습니다. 집이 먼 이유로 그간 목장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연브라이언/연주희집사님이 자원함으로 감사히 가정을 열어 섬겨 주셨고, 비치데이라는 특별한 기회여서 평소보다 더 많은 목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풀장에서 뛰어 놀고 부모님들은 주위에서 친교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섬겨 주신 목장 식구들, 함께 해 주신 마을 식구들, 방문해 주신 담임목사님, 가정을 열어 주신 연집사님 가정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장식구들 뿐만 아니라 예일교회와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화평한 목장

“두 사람이 한 사람 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 나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이며,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 성도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특별한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여진 우리는 “화평한 목장” 입니다.

우리 목장은 예일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예수님 제일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역동적 목장활동으로 전도가 활성화 되고 우리는 예일의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목장을 통하여 확실히 느끼며 목장활동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익을 얻고, 혼자 하기 힘들었던 사역도 함께 하게 될 것이며, 혼자 전도하기 어려웠던 전도 대상도 우리 목장에 초청하여 열매 맺는 기쁨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자님을 중심으로 목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한 목장은 목장활동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단순 소박한 생활을 통해 매일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장소라는 것을 느끼며, 힘내… 사랑해…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I'm always rooting for you…



코이노니아 목장

지난 9월 22일 금요일 목장예배는 목자인 김동환/이정은 집사님 댁 심방 예배로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장막을 위하여 기도부탁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목장식구가 많기에 목자로서 더 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두 가지 소망이 다 갖춰진 아름다운 장막을 허락

하셨던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항상 기도하시는 김창성 장로님과 이길자 권사님께서 우리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모두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심방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목자 가정에서 이정은 집사님 표 월남국수를 준비하신다고 우리들에게는 참석만 부탁하셨지만, 서로 돕자며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 가지고 오다 보니 또 하나의 잔칫상이 되어 푸짐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아이들 또한 많은데 모일 때마다 어른과 꼭 같이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셨다가, 동시에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순간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금요일 세상을 향해 있을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고 부모를 따라 목장예배에 온 아이들이 참 대견하고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날 목사님께서 시편 127 편을 통해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코이노니아 목장을 언제나 지켜주시며 복된 자녀들을 부모가 믿음으로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 목장

올해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일나무에 은혜목장 가지가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목장을 은혜목장이라 부르기 하였답니다.

코이노니아 목장과 함께 5마을지기로 잘 돌보시는 박재우 장로님/ 우해숙 권사님의 보살핌 아래 목자 김광남(김승아)집사님과 총무 김정현(차상연) 집사님께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원 가정으로는 강성식/강승원 집사님, 성효식/최영희 집사님, 한지혜(박정환) 집사님, 김숙이(유형진) 집사님, 오세일(박은경) 집사님, 장훈/이문영 집사님 그리고 최병길/최상희 집사님과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자녀들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그리고 결혼과 직장을 가진 자녀들로 다양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목장입니다.

은혜목장 안에서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가정이 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가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자라나는 믿음을 주시며, 학교와 직장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올 한해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는 은혜목장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샤론 목장

샤론의 꽃 예수님이 떠올러지는 사랑이 넘치는 샤론목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샤론 목장은 제 6 마을에 속하고 윤희주 장로님이 마을 지기로, 한규만/한진영 집사님이 목자로 한문차 집사님이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짧은 가정으로 구성된 샤론목장은 대부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에 학교, 자녀,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눌 때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이해하며 기도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목장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맛난 음식과 간식들을 나누며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른들을 비롯해 아이들까지 항상 목장이 끝날 시간쯤이면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뭐든지 술선수범 하시는 목자님의 알찬 계획 덕분에 지난 8월 18-19일에는 여름 캠핑 (Wildwood State Park)을 통해 1박 2일로 밤에 집에 갈 걱정 없이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예배와 찬양도 마음껏 드리고 늦게

까지 그동안 못 다한 서로의 이야기에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시 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 테이블에서 바비큐를 맛보게 하시고 더운 낮에는 캠핑장 가까이 바닷가에서 시원한 물놀이까지 즐기게 하시니 은혜 가득하고 추억거리가 넘치는 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5).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목자, 총무님 가정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목원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찬양에서 예찬 목장이름이 지어진 예찬 목장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목원들이 모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도부용 집사와 도명원 권사님이 목자와 목녀로 섬기시며, 이규희 권사님이 총무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정재남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부부, 목장의 기둥과 같은 김성식, 오정아 집사님 부부와 김은희 권사님이 계셔서 목장이 든든하며, 박현숙 집사님과 정춘화 집사님의 참여로 풍성한 느낌의 목장이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등 목장 활동에 동참하시면서 후원해주시는 권영현, 윤선애 집사님 부부, 김현균, 김진경 집사님 부부, 그리고 김혜순 집사님 덕분에 올해에는 예찬 목장은 더욱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목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재남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부부께서 올해 목장을 위하여 연달아 가정을 자진하여서 오픈하여 주셔서 기쁘고 사랑이 넘쳐나는 목장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만 오픈하신 것이 아니라, 말없이 뒤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사랑이 가득



뭉은 음식은 맛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스페셜 콩치구이는 가히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투병중이신 현종렬집사님이 계셔서 목원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며, 목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한 마음이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금방 가버리는 시간을 모두 아쉬워하는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이름대로 예수님 찬양하며 사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 목장



온유목장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7마을에 속하고 송광수 장로님/방영희 권사님께서 마을지기로, 박제진 집사/김지애 집사가 목자로, 임미라 집사/강호정 집사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유목장의 목원들은 제리코, 사이요셋, 플레인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 가정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녀들도 비슷한 나이이어서 서로 고민과 관심사도 비슷하고, 서로 신앙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여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학교, 자녀,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돌보아주는 따뜻한 가족 같은 목장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 7월 30일에 온유 목장은 사이요셋에 있는 우드베리 커뮤니티 파크에서 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광수 장로님 가정에서 넷째 손주의 출산을 기념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찬 목장의 도부용 집사님 가정과 서병구 집사님 가정도 함께 식사 준비에 도움을 주셔서 40여 명의 마을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6마을과 족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 마을 예배를 통해 목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목원들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유 목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목장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믿음 목장

이렇게 주보의 한 페이지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믿음 목장은 5마을 마을지기이신 한기하 장로님, 목자로 임병설집사님, 총무로 김광남집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 목장으로 늘 만나던 식구들도 반갑고 정겹지만 올해는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새로운 가정들이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믿음 목장은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다음에 다시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는 목장, 또 만나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와함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목장이 되

려고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모임과 예배가 없는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목원들 가정과 태신자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장모임과 예배로 만나게 되면 더욱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목장모임과 예배는 돌아가며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각 가정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받아 기도페이퍼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어 서로 기도하고, 새로운 기도제목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올해 믿음 목장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본이 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크게는 하나님나라의 아주 작지만 한 부분을 이루어 가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예향 목장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예향목장에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오! 해피데이를 통해 목장이 성장해서 또 하나의 목장으로 분가하여, 지난 해 총무로 수고하셨던 강철순 양명옥 집사님 가정이 소망목장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금년 예향목장은 항상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목장 모임 때 마다 모임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8마을 지기 유학준 장로님께서서 함께하십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길 기도하는 박성우 목사님과 김영애 목녀님 그리고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태호 최길옥 집사님 부부는 목원들의 필요와 소원을 꼼꼼히 챙겨 모임 때 마다 중보하며 나누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니다.

눈이 많이 왔던 지난 모임에도 맨하탄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도 목장을 위해 눈길을 헤치고 달려오셔서 모든 목원들의 본이 되시는 서병구 서주옥 권사님 가정, 오! 해피데이 초청과 목장모임 그리고 교회등록, 새신자 훈련의 정규코스를 밟으신 심성실 성도님, 그 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과 씨름하며 단기선교 부채춤 사역 최초의 2선교회원이 되신 김명숙 집사님, 말씀을 나눌 때 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박종순, 박동희, 이소원 집사님 삼총사...

그리고 주광석집사님, 이창원 집사님, 장봉용 이종매 집사님, 조준익 최연실 집사님처럼 여건상 모임이 쉽지 않은 목원들과는 SNS로 기도제목과 교회행사 그리고 봉사를 통해 목원들 간에 유대를 더욱 다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향목장은 올해에도 모든 목원들이 힘써 말씀으로 하나 되어 양육과 전도에 온 마음을 다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이 되리라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 목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에 있듯이 저희 감사 목장은 범사, 그야말로 모든 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제 8마을에 속하고 정수영 장로님/천매자 권사님



을 마을지기로, 권철훈 집사님/권미정 권사님이 목자로, 류석환/박용자 집사님이 총무로 섬기십니다.

대부분 롱 아일랜드 씨пок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목원들로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예배 때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운전해 참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마다, 행사 마다 기꺼이 참여해 감사히 섬기시는 은혜 받는 목장입니다.

지난 7월 30일은 야외목장예배로 같은 마을 소속인 예향 목장과 같이 우드베리 공원에서 연합목장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목장예배 며칠 전만해도 그렇게 날씨가 안 좋더니, 야외목장예배를 드리는 주일 당일에는 7월 한여름에 극히 드문 아주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여서 모든 목원들이 오랜만에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지기 이하 목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맛있는 음식 준비 등 열심히 섬겨 주셔서 즐겁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해서 기쁘고, 모처럼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를 마셔 건강해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웃으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야외목장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서로에게 기도의 힘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목장을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CCM을 담당하고 있는 채문권 목사입니다. 지난 8개월 CCM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훗날 예일교회의 한 축이 될 CCM 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Christ Centered Ministry(CCM)는 주일 낮 1시에 모여 예배하며 평소에는 35-45명 대학생들이 돌아오는 방학 때는 60-80명이 모인답니다. 대부분 18세부터 32세의 젊은 싱글들이고 영어가 편한 한국인 1.5세와 2세 입니다. 그 중 7명은 유치부, 유년부, 유스그룹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CCM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CCM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는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매주 주일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세워가고 (기도, 성경봉독, 헌금위원, 간식), 1-2개월에 한 번씩 Praise & Prayer Night 으로 금요일 저녁에 모여 힘써 기도합니다(3월 3일 첫 시작!!). 또한 월 1회씩 College와 Post-college 그룹 모임을 목장 예배 형태로 드리며 예배와 소그룹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

지만, 앞으로는 가정 심방을 겸하여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목장모임 형태로 모이고자 합니다. CCM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 외의 금요일에는 Bible Study나 Friday Night Fellowship (FNF)으로 모입니다. 아직 결혼한 가정은 1-2 가정 뿐이지만, 차차 또 Married Couple 그룹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CCM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노출 되면서 겪는 신앙의 문제 등입니다. 처음으로 다원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남고 인정받아야 하는 시기이기에 신앙의 회의를 겪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거나 인생의 목적을 놓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리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은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견고히 세워져 세상을 밝힐 그 날을 바라봅니다!!!

YOUTH GROUP



예일 중고등부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교사들은 유명근전도사를 비롯하여 강성식집사(부장), 계현민집사(총무), 김동환집사(총무), 김근태 장로, 이정은집사, 구본원 집사, 김경훈집사, 김 산 형제, 박영준 집사, 박성희 자매입니다. 예일 중고등부의 학생들은 나이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서로 잘 공감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 고등부에서 믿음 안에서 무럭 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일 중 고등부는 7시에 만나서 저녁을 먹은 후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학년별로 공과공부를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합니다.

둘째, 교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로서 예일 중 고등부 수련회는 일 년에 두 번 (여름, 겨울) 있습니다. 수련회는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별한 행사로서 매년 해외로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워크캠프가 있습니다. 선교에서는 아이들이 사회봉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위와 같이 금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함께 선교와 워크캠프를 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세요.



유년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일 유년부입니다! 우리 유년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박에스터 전도사님을 비롯해 박용훈 집사님, 최상희 집사님, 김주양 집사님, 김지에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김은영 선생님, 김하형 선생님, 김봉환 집사님, 박수범 집사님, 김주혜 선생님과 함께 매 주일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은 15분 전에 유년부실에 도착해 예배드릴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정한 옷, 성경, 헌금봉투에 헌금(헌금봉투에는 이름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을 적습니다.)

12시부터는 각 학년으로 나뉘어 성경공부를 합니다. 성경공부는 두란노에서 나온 "I Love Jesus" 큐티책으로 합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쁜 큐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엔 성경공부반에서 다 같이 주일 말씀을 배우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 열심히 충만해서 큐티책을 문제집같이 답을 한꺼번에 다 써넣고 다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열심을 칭찬해 주시면서 큐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와 함께 매일 큐티를 하면서 encourage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큐티 책 가져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있을 유년부 행사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아이들 봄 방학 동안 무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4월 10일-12일까지). 이번 9월에 Pre-Kindergarten 가는 아이들부터 현재 6학년 아이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방학 동안 집에서 게임과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놀이로 배우며 친구들을 만드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봄 성경학교에 대해서는 유년부 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년부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선교회 효도단풍구경 및 기도회

사랑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인 목장이고 선교회입니다. 이름처럼 사랑이 많은 분들이면서도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매년 봄에는 효도관광을, 가을에는 단풍놀이와 기도회를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올해도 콜럼버스데이를 끼고 주일 오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떠나서 콜럼버스데이인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단풍놀이라 함은 오가는 길 차창을 통해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는 것인데 올해는 늦게까지 따듯한 날씨 탓인지 단풍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일기예보는 태풍이 뉴욕 쪽으로 오고 있다 해서 걱정했는데 떠날 때 약간의 비가 왔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맑은 하늘을 주셔서 산책하는 데도, 또 돌아오는 길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을 기도회 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가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각각 세 번씩 먹고 돌아옵니다. 요리하시는 집사님이 특별히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모두들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해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말씀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풍성해서 눈물의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뜨겁게 기도하며 남은 생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와 자녀손들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작년부터 신경호 목사님께서 라이드를 도와주셨는데 올 해는 즐거운 게임시간까지 준비해 주셔서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푸른 농장에 들립니다. 예전에는 애플피킹을 했는데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사과를 따는 것도 힘들어 하시기에 그냥 농장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맛있는 배 한 상자씩 선물로 받고 돌아오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 해의 가을 단풍놀이와 기도회도 영과 마음과 육이 모두 은혜롭고 풍성한,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목장 식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이라 생각하며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보답할 길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벽이슬회 이야기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에 새롭게 꾸며진 새벽이슬
회 예배실 준공 기념예배 및 다
과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
과 사모님,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
들이 참석하셔서 새벽이슬회 새 예배실 준공
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교인
들을 초대해서 예배실 준공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성도님들의 도
움과 관심에 감사하여서 새롭게 바뀐 예배실
을 보여드리고자 함과 앞으로 새벽이슬회 청
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하
나같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는가?’ 이었습니다.

이 날에 김종훈 목사님께서서는 시편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
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는 말씀으로 새롭게
꾸며진 예배실에서 예배를 통해 많은 청년들
이 주께 헌신하며 나아오는 비전의 말씀을 주
셨습니다.

말씀 후에 준공을 기념하여 청년들이 준비
한 테이블을 자를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어 하며 축하해 주
셨는데, 성도님들과 청년
들이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축제처럼 준비한 조출한 다과를 함께 나눴습
니다.

새 예배실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두 하나님
의 은혜였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자신들의 사비로 선반을 만들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들어 사용하셨
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계획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교회에
서 공간을 더 넓혀 공사해주시고, 또한 스피
커와 텔레비전과 테이블 등이 필요할 때에 하
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주 정확한 시
간에 도네이션의 손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
님께서 얼마나 새벽이슬회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실버클럽 이야기

예일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실버클럽, Mommy & me 그리고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일 실버클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도 타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나이나 정도가 서로 비슷 비슷한 무리)가 모이는 경우에 이러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일 실버클럽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예일 실버클럽은 커뮤니티 봉사의 프로그램으로 2006년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롱아일랜드와 플러싱에 사시는 60세 이상의 비 신자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1세대의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일 실버클럽은 매주 목요일 80-90명의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합창반, 바둑반, 다트반, 기타반, 탁구반, 뜨개질반(영어반)중 선택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취미생활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또한 일 년에 두 번의 소풍 그리고 치과상담과 법률상담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일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점심식사는 이미 지역에서 맛있기로 소문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실버클럽에서 체조, 뜨개질, 합창, 점심봉사, 차량운행, 영어, 탁구등 열심과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셔서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사용하셔서 실버클럽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예일 실버클럽은 이 시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통해,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 섬김의 손길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해피데이 드라마팀



먼저 ‘오 해피 데이’ 드라마를 통해 큰 은혜주심을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 어느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보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특히 올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 참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시작부터 우리 드라마팀은 난관을 겪었지만 꺼질 듯 위태로운 작은 심지에 불을 붙여주셔서 드라마에 필요한 한 분 한 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한 순간을 위하여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연습 또 연습, 손짓, 표정, 발걸음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회복이 되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바쁘고 힘든 생활전선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에 불을 밝히고, 오 해피데이 당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았다면 무대를 마치고 난 큰 감동은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9시 반에 모여 준비한 음식을 차에 싣고 저희는 할렘에 있는 Soul Saving Station 교회로 향했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떠날 19명의 유스그룹 학생들과, 맨하탄선교팀 4명, 권사회에서 자원하신 분들 4명, 그 외에도 몇몇 집사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1시 30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권사님들을 비롯한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유스그룹 학생들은 들어온 사람들 곁에 앉아 환영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12시 반 즈음 되자 장소가 사람들로 거의 채워졌고, 유스 학생들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찬양을 3-4곡 부르고, 유스그룹의 판토마임, 이어지는 박성하 목사님의 멋진 솔로 찬양이 두 곡 이어집니다. 그 후 1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후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대하여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인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

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너무 내 주위만 맴돌며 살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일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소망 없는 자들을 일으키고, 강도 만난 사람

할렘선교 이야기



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Retreat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교역자들은 어김없이 교역자 리트릿을 떠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고 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예일교회 교역자들은 Tuscarora 수양관에서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각 사역파트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듣고, 준비한 내년의 계획들도 나누고, 크게 변경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함께 기도함으로 교역자 리트릿을 마무리 합니다.

하루이지만 교역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시간이고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지만, 오고 가는 길도 즐겁습니다.

간식을 나누며, 평소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함께하는 점심과 저녁 식사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보니 교역자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거든요. 2017년 한 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각각 맡은 사역부서에서 부지런히 달려온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심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 부족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2018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일교회 교역자들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찍은 각 목장의 사진을 함께 보며 한해를 감사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목장이 잘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각 목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목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들에게 목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은 목장들이 살아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사면에서 불어와 각 목장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친교가 살아나고, 나눔과 기도가 깊어지는 목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을지기, 목자, 총무의 밤 이야기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새 해를 소망하는 시기입니다. 마을마다 목장마다 선교회마다 지난 2017년을 마감하고 새 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18일 교회에서는 마을지기, 목자, 총무의 밤을 가졌습니다. 봉사부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마을과 목장을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메시아가 나신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면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난 4/24일 화요일에는 저희 4여성교회 주관으로 널싱홈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담임목사님 부부와 신경호, 홍정자 목사님 그리고 회장인 저와 이유정, 김미애 집사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한곳에 가서 똑같은 일정으로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여느 해와 다르게 여러 널싱홈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교인 중에 널싱홈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 뵙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플러싱 샤페이어 널싱홈에서 만난 김귀임 전도사님은 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며 준비해서 가져간 꽃바구니를 보시며 예쁘다고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두 번이나 겪으신 이순옥 권사님은 몇 번이나 왜 연락 없이 왔냐고 말씀하시면서, 연락하고 왔으면 점심 내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목사님께서 “다음에는 꼭 연락드릴 테니 냉면하고 만두 해주세요.” 라는 말씀에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평생을 주의 종을 섬기시던 분이랴 그 곳에서도 못내 아쉬워하시던 모습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님은 몇 달 동안 편찮으셨다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없으셔서 인사도 잘 못 받으셨는데 찬양은 어찌나 잘 하시던지, 그것도 다 외우셔서 부르셨습니다.

널싱홈 방문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프랭클린 널싱홈에서는 은퇴하신 김형훈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어르신들에겐 음식과 여건이 맞지 않아 힘들어 하시

는 것으로 가실 수 있기를 모두 기도 했습니다. 플러싱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롱아일랜드로 넘어와서는 유니온데일 널싱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옆방에서 사귀 친구 분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는 한상숙 권사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두 분은 주변에 계신 더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분 연세가 90세가 넘었다고 하셔서 모두 놀라 비결을 물었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말씀 하시며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우시던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널싱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내내 마음이 훈훈해 졌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교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지면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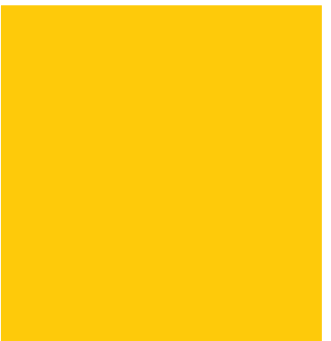
선교회 성탄절 모임



지난 성탄절에는 예배 후에 사랑선교회에서부터 1~6선교회와 새벽이슬회 그리고 CCM까지 선교회별로 모여 친교를 가졌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위해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나눌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과 게임 등을 통하여 신입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 간의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는 그야말로 성탄의 기쁨이 각 선교회와 가정마다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회에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2018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선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일 찬양단 신양수련회



수련회 장소가 교회에서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라 조바심으로 시작했던 지난 주 일이었습니다. 신양생활을 하면서 찬양단원들 각자의 삶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던 찬양 하나씩 마음에 담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앉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이 시간에는 어느 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찬양단의 신경호목사님이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단장님과 총무님을 비롯한 단원들이 수고해주신

음식으로 찬양단원들 모두 즐겁게 육의 양식도 채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귀하고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다음 날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아침에 먼 거리를 운전하여 찬양단 수련회를 찾아 주시고 말씀까지 전해주시신 담임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 드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새롭게 다짐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예일 찬양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6선교에서 만찬 준비 봉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전년도에 준비하였던 내용을 참고로 만찬 준비를 위한 메뉴를 정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작년보다 성도인원수가 늘어나 작년에 준비하였던 양보다 조금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각종 음식 재료의 종류와 양을 가늠하여 어디서 장을 볼 것인지 정한 뒤, 6선교 몇 분의 도움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음식재료와 메뉴에 도네이션을 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을 보기 위해 대형 마트인 코스코, 레스토랑 디푹, 비제이, 한국마켓등 여러 스토어를 들르며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였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전날인 토요일 아침에는 6선교회 회원들께서 교회에 나와 음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메뉴를 준비하였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일은 6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5선교회 회원들 몇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당일에는 많은 6선교 회원 분들이 미리 1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음식과 테이블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 통닭은 코스코가 오픈하는 10시에 도착하여 픽업하여 왔으며 그 양이 많아 특별히 교회 미니밴을 이용하여 픽업해 올 수 있었습니다. 갖고 온 통닭은 부엌에서 정성스레 분리 해체가 이루어지

고 음식이 식지 않게 각 트레이에 담아 열판이 있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증축한 부엌이 넓어지고 새로워져 많은 성도들이 모여 일하는데 용이하였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데우고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이 많이

6 선교회와 추수감사절 만찬



수월해져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의 만찬을 맛있게 드시며 함께 즐기는 모습은 봉사하는 모든 6선교 회원들의 기쁨이었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오행시

수상작/수상자



● 박민애

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년을 보내면
절 절절하신 예수사랑 평생을 보내네
찬 찬송하는 나의 입술 새 마음 되었고
양 양파 같은 나의 모습 새사람 되었네



● 도부용

감 감미로운 그 음성 내 마음에 들린다.
사 사랑하는 아들이 네 고통을 안단다.
절 절망하는 그 때도 내가 너를 지켰다.
찬 찬바람이 불 때는 너 때문에 울었다.
양 양 어깨를 감싸고 내가 너를 안았다.



● 도명원

감 감사의 계절에 쏟아지는 햇살은
사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신 새소망
절 절망의 시간들 인내함을 배우고
찬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네
양 양팔을 높이어 하나님께 경배해



● 방영희

감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찬송 부르세
사 사랑하는 우리 주 우리 삶을 이끄네
절 절망하고 지치고 엎어졌던 우리들
찬 찬송하며 감사해 믿음으로 이겼네
양 양 무리 된 성도여 감사찬송 부르세



● 김민영
(주일학교 3학년)

감 감자탕을 좋아하는 아빠와
사 사랑이 많은 엄마에게
절 절 딸로 주신 하나님께
찬 찬양해요 모두
양 양팔을 벌려 소리질러요. 할렐루야!



발행인 : 김종훈 담임목사
 위원장 : 김준택 장로, 김근태 장로
 부 장 : 박성우 집사
 총 무 : 강호정 집사
 부 원 : 임미라 집사, 강서윤 집사, 홍성민 집사, 홍 영 집사
 표 지 : 진유정 집사
 사 진 : 김민수 집사, 유성민 집사
 교 정 : 조유경 사모, 김미라 권사, 김영애 권사, 최양미 권사

예수마을

효자들이 사는 마을을 효자 마을이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장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예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 변화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고독과 상처, 증오와 싸움, 원망과 죄책감, 방황과 죽음 속에 오염된 세상을 이 예수 마을로 온통 뒤덮고 말리라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창립 25 주년을 맞는 1995년부터 책자로 편집하여 "예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 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25th ANNIVERSARY



뉴욕에일장로교회